

투자과 연금

AUTUMN Vol.15

+ ASSET INSIGHT

S&P500 빅테크 쏠림 부담된다면
동일가중 지수 눈여겨볼 만

+ FOCUS

'채권 사다리 전략' 응용해
개인투자용 국채로 '자가 연금' 만드는 법

+ WELL-AGING

반려 로봇과 노후
함께하는 시대 머지않았다



커버드콜 ETF

韓·美 베이비부머 취향 저격하다

비과세로 투자하고
[관련 세법 충족시]

잘나가는 글로벌펀드를
수시로 추가하고 바꿀 수도 있고

[미래에셋생명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매년 12회 범위 내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가능, 펀드 변경 시 수수료없음]

글로벌MVP60펀드 누적수익률

73.74%

[2014.04.01~2024.02.29, 생명보험협회 공시]



연금 투자하는 좋은 방법,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 잘 나가는 글로벌펀드 수시 추가·교체

(매년 12회 범위 내 투입펀드 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가능, 펀드 변경 시 수수료 없음)

● 비과세 혜택,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기간 및 횟수제한,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수수료 공제, 단, 보험연도 연 4회 면제, 중도인출 전후 환급금 동일하지 않음)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입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에셋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1224호 (2024-03-05~2025-03-04)

행복한 은퇴설계의 시작 -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이 광고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미래에셋 TDF로 자산을 든든하게 투자하세요!

수탁고 1위의 신뢰와 전세계를 아우르는 운용 역량으로 노후를 든든하게!

- 총 39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31개가 미래에셋자산운용 TDF 포함
- 총 220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중 96개 미래에셋자산운용 TDF 포함 (원리금 보장형 제외,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 기준)
- TDF 설정액 1위 (2023년말 금융투자협회 기준)

● 미래에셋전략배분TDF ● 미래에셋ETF로자산배분TDF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2871호 (2024-07-16 ~ 2025-07-14)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COVER STORY

커버드콜 ETF

韓·美 베이비부머 취향 저격하다

- 06 OVERVIEW
베이비부머 세대가 찾는 커버드콜 ETF
어떤 매력 있길래
- 10 베이비부머 투자 가이드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월급의 빈자리 채울 때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 14 3040 투자 가이드
3040세대도 찾는 커버드콜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은?
- 16 절세 가이드
커버드콜 ETF 분배금,
세금·건강보험료도 눈여겨보아야

04



34



38



40



44



GLOBAL SENIOR STORY

전 세계 시니어들의 노후 트렌드

34 **독일** 매일 인터넷 사용한다고 답한 비중 80% 달해

독일 시니어들 온라인 소통 활발,
SNS보다 정보성 웹사이트 선호

38 **미국** 간호사·심리상담사가 환자 집 방문치료
메디케어 포함돼 의료비 부담 덜어

병원 가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재택 카운슬링·테라피 서비스가 큰 도움

40 **일본** 한 사람 일 여러 시니어가 나눠 수행
전용 매칭앱 'GBER' 활용 지자체 확산

고령자 재취업 새로운 실험, '모자이크형 취업' 뜬다

44 **호주** 코로나19 사태 후 2년, 호주 은퇴 트렌드 변화

은퇴 연령 점점 높아져,
지금 20세는 70세까지 일할 수도



18



24



52

- 18 **ASSET INSIGHT** ETF, 이것이 궁금하다
S&P500 빅테크 쏠림 부담된다면 동일가중 지수 눈여겨볼 만
- 24 **INSIGHT TALK**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현재와 미래
“푸른씨앗의 안정적 운용 성과 30인 이하 중소기업장에 빠르게 입소문”
- 28 **FOCUS** 개인투자용 국채 활용 전략
‘채권 사다리 전략’ 응용해 개인투자용 국채로
‘자가 연금’ 만드는 법
- 30 **SPECIAL INTERVIEW**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김태성 케어링 대표
‘요양에 진심인’ 사람 모여 통합 요양 서비스 기업 일군다
- 46 **BOOK REVIEW**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
당신의 노후 포트폴리오에 답아야 할 ETF 테마 3가지
- 48 **CARTOON** 흥승우의 울드
초고령 BEGINS
- 52 **WELL-AGING** 한소원 교수의 ‘스마트하게 나이 들기’
반려 로봇과 노후 함께하는 시대 머지않았다



AUTUMN
Vol.15

발행처 (주)엑셀런스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302호(여의도동, 센터빌딩)
Tel 02-2038-8980
Fax 02-3273-8981

발행인 윤길주
편집인 임혁

아트디렉터 이민자

사진 이원근, 강현욱

교열 중앙일보어문연구소

이미지 gettyimagesbank·뉴시스·연합뉴스
엑셀런스코리아DB·Shutterstock

등록일 2020년 11월 30일
등록번호 영등포 사 00056
간별 개간(연 4회)
발행일 2024년 9월 5일
출력·인쇄 웰컴피앤피(031-942-2203)

투자과 연금

정기구독 안내

<투자과 연금>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 매거진입니다.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투자 및 연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료(연 4회) 1만9000원(배송비 포함)
ISSN 2951-1550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2038-8980
insight@insightkorea.co.kr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0-911582
예금주: (주)엑셀런스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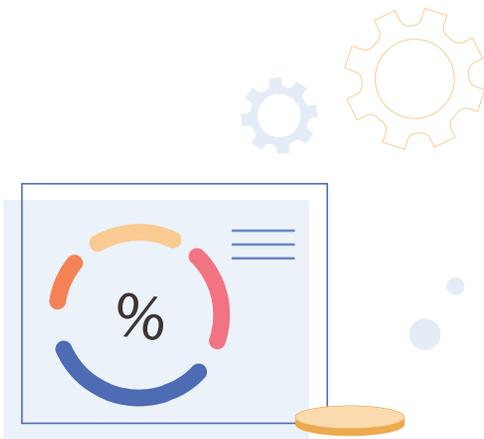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커버드콜 ETF

韓·美 베이비부머 취향 저격하다



■ 최근 미국 은퇴한 베이비부머들 사이에 부머 캔디(Boomer Candy)라 불리는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1946~64년 사이에 태어난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미국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미국인 5명 중 1명이 베이비부머인 셈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또한 상당하다. 특히 미국 베이비부머 중에는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2023년 말 기준 미국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펀드 자산의 56%를 베이비부머가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베이비부머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어 주식 변동성을 감당하기 버거워졌다. 주가가 크게 출렁거릴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잘못하면 은퇴자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에는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베이비부머 니즈를 제대로 저축한 ETF를 부머 캔디라고 부른다.

부머 캔디는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옵션을 활용해 투자 대상의 변동성을 낮추거나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달콤한 꿈을 꾸며 편히 잠들 수 있다고 해서 부머 캔디라는 별칭이 붙었다.

부머 캔디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옵션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버퍼형이라 한다. 콜옵션을 매도해 얻은 프리미엄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커버드콜이라고 한다. 콜옵션 대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을 커버드풋이라고 하는데 그 비중은 크지 않다. 이들 중 대체는 커버드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커버드콜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이미 정년(60세)을 넘겼고, 2차 베이비부머(1968~74년생) 또한 정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을 찾아야 하는 베이비부머가 매달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를 눈여겨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이번 호 <투자과 연금>은 미국과 한국 베이비부머들의 관심을 끄는 커버드콜 ETF를 집중 점검한다. 커버드콜 전략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특히 높은 분배금의 이면에 숨어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짚어본다. 더불어 분배금을 노후생활 재원으로 활용하는 은퇴자와 분배금을 재투자하려는 이들이 꼭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M**



OVERVIEW

1
베이비부머 세대가 찾는 커버드콜 ETF 어떤 매력 있길래

2

베이비부머 투자 가이드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월급의 빈자리 채울 때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3

3040 투자 가이드
3040세대도 찾는 커버드콜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은?

4

절세 가이드
커버드콜 ETF 분배금, 세금·건강보험료도 눈여겨봐야

베이비부머 세대가 찾는 커버드콜 ETF 어떤 매력 있길래

Editor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연구원

■ 최근 미국 베이비부머 투자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ETF 상품군이 있다. 바로 '부머 캔디(Boomer Candy)'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슈나스(Eric Balchunas)는 "부머 캔디는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완화해 베이비부머(Boomer) 투자자에게 편히 잘 수 있는 달콤함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1946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를 일컫는데 미국 인구 중 약 21%를 차지한다. FED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미국의 주식·펀드 자산 중 약 56%를 보유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그들 대부분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어 은퇴자산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한 수단이 바로 부머 캔디다.

부머 캔디는 옵션 매매를 활용하는 ETF 상품군이다. 옵션 거래를 통해 손실을 직접 보상해 주는 유형(버퍼형)과 옵션 매도로 받은 프리미엄을 ETF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유형(커버드콜·커버드풋)이 있다. 그중 최근 2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인 유형은 커버드콜 ETF다. 2022년 기준 순자산 규모가 326억 달러에서 2024년 7월말 기준 784억 달러로 141%가량 늘어 동기간 미국 전체 ETF 순자산 증가율(약 41%)을 상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년간 커버드콜 ETF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022년 7월말 769억원에서 올해 7월말 4조원으로 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ETF의 순자산은 2배가량 증가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 자료를 취합한 결과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 중 50대 이상이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월말 기준).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74년생)의 마지막 연령

이 현재 만 50세라는 점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베이비부머 투자자를 중심으로 커버드콜 ETF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커버드콜 ETF의 매력은 무엇일까.

상당한 분배금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 가격 상방은 제한돼

커버드콜 ETF의 주요 특징은 정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7월말 현재 국내 상장된 커버드콜 ETF는 총 23종목인데 이 중 22개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다. 국내의 모든 월배당 ETF 상품을 분배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1위부터 4위까지가 커버드콜 ETF다(7월말 기준). 커버드콜 ETF는 어떻게 해서 높은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일까.

기존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는 배당금, 채권 이자 등을 재원으로 했다. 커버드콜 ETF는 여기에 추가적인 재원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한다.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다. 콜옵션이란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콜옵션 매도자는 콜옵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콜옵션 매수자에게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에 매도해야 한다. 예컨대 어느 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행사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한 콜옵션이 있다고 하자. 해당 주식의 가격이 1만1000원으로 올라 콜옵션 매수자가 옵션을 행사하면 콜옵션 매도자는 1만1000원짜리 주식을 1만 원에 매도해야 한다.

콜옵션 매도자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손실 폭이 커지기 때문에 옵션 매도에 대한 대가, 일명 프리미엄을 받는다. 커버드콜 ETF는 이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지급한



다. 여기에 기초자산 보유에 따라 받는 배당 또는 이자를 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분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하긴 하지만 그 수준이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보장할 순 없다. 기초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자가 받는 분배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커버드콜은 구조적으로 기초자산 가치 상승분을 포기하는 전략이다. 자산가치 상승은 성과에 반영하지 못하지만 하락에 따른 손실은 입기 때문에 분배금으로 손실 일부를 충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과가 부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는 흔히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장세에서 유리하고 대세 상승장에선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는 진화하고 있다. 기초자산 종류가 늘고, 콜옵션 매도 방식도 변화했다.

미국 시장대표지수부터 성장테마까지 기초자산을 다양화하다

최근 국내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했다. 2년 전인 2022년 7월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커

버드콜 ETF는 5종목으로 기초자산은 모두 코스피200이었다. 올해 7월말 기준 상품 수는 23종목으로 늘었고 한국 또는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배당주, 성장테마주, 장기채 등 기초자산 종류도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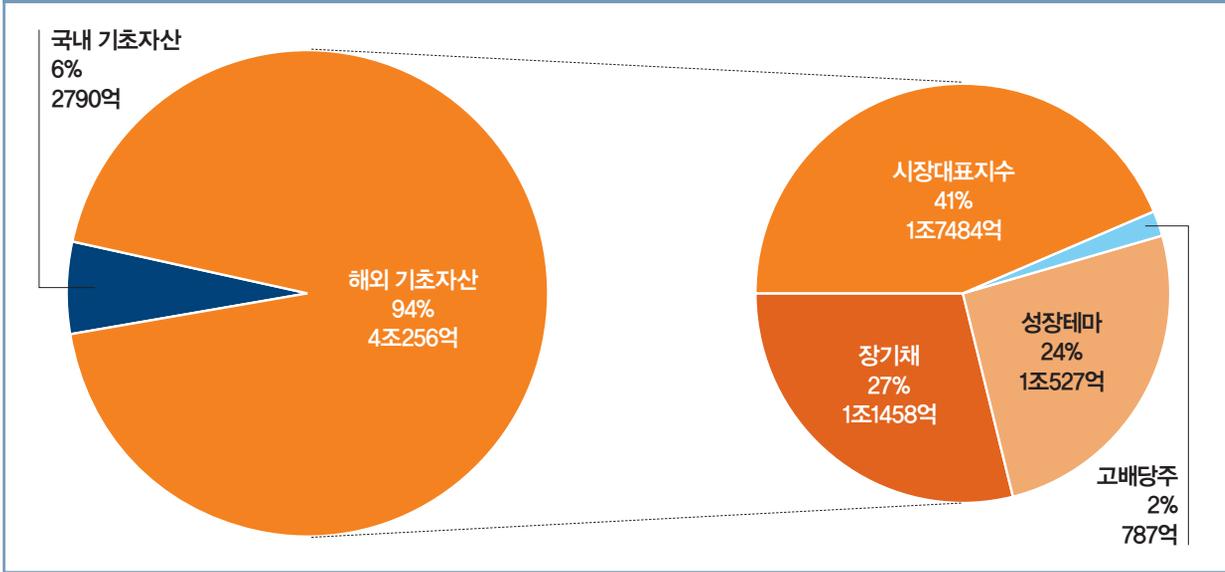
특히 해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ETF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국내자산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의 상품 수는 5개인 데 반해 해외자산을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 상품 수는 18개다. 순자산 비중으로 보면 해외 기초자산 커버드콜 ETF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S&P500이나 나스닥100과 같은 미국 시장대표지수를 기초로 한 커버드콜 ETF가 종목 수나 순자산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성장테마주 등 잠재력이 높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ETF가 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들은 진화된 커버드

자산군별 국가별	주식			채권	계
	시장대표지수	고배당주	성장테마	장기채	
국내	3	2	0	0	5
해외	7	2	5	4	18
계	10	4	5	4	23

기초자산별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7월말 기준)

단위: 원



콜 전략을 활용해 분배금과 가격 상방의 성과를 모두 취하는 것을 목표로 탄생했다.

콜옵션 매도 방식 변화로 가격 상방 제한 완화하다

커버드콜 전략은 3단계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1단계인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은 기초자산 비중 전체만큼 만기가 1개월인 콜옵션을 매월 1회씩 매도했다. 이 경우 가치 상승에 따른 성과를 거의 대부분 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단계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줄인 것이다. 기초자산 가치 중 일부만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기초자산 상승분을 보다

더 취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콜옵션 매도 비중을 줄인 만큼 콜옵션 매도 대가로 받는 프리미엄이 줄고 이를 재원으로 한 분배금 역시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3단계 커버드콜 전략은 만기가 짧은 콜옵션을 더 자주 매도하는 것이다. 옵션 만기가 짧아질수록 매도 대가로 받는 프리미엄도 줄지만 감소 속도는 체감한다. 예컨대 만기 1주일짜리 옵션을 월 4회 매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총합은 1개월짜리 옵션을 월 1회 매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보다 많다. 따라서 만기가 짧은 옵션을 더 자주 매도하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더라도 분배금 수준이 줄지 않는다. 이를 극단화한 전략이 만기 1일짜리 옵션인 초단기 옵션을 매일 매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유지하면서도 상방 제한을 상당수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진화된 커버드콜 전략이라도 여전히 일정 부분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기초자산 상승분을 모두 취하지 못한다. 또 지급하기로 목표한 분배금 금액을 충족하기에 현재 수취한 프리미엄이 부족하다면 추후 콜옵션 매도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그만큼의 가치 상승분 성과를 포기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분배금과 가격 상방의 성과를 모두 기대할 경우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커버드콜 전략 진화 단계별 특징 비교

구분	1단계 (전통적인 커버드콜)	2단계	3단계
옵션 매도 비중	100%	100% 미만	100% 미만
옵션 만기	1개월	1개월	1개월 미만
매도 주기	월 1회	월 1회	주 1회, 일 1회 등
기초자산 상방 참여도 비교*	1단계 < 2단계 < 3단계		
변동성 비교*	1단계 < 2단계 < 3단계		

*기초자산은 동일하다고 가정

커버드콜 전략이란

커버드콜 전략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기초자산을 보유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때 콜옵션이란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 즉, 행사가격에 살 권리를 말한다. 커버드콜 전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기초자산만 보유하고 있을 때, 콜옵션 매도만 했을 때,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했을 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익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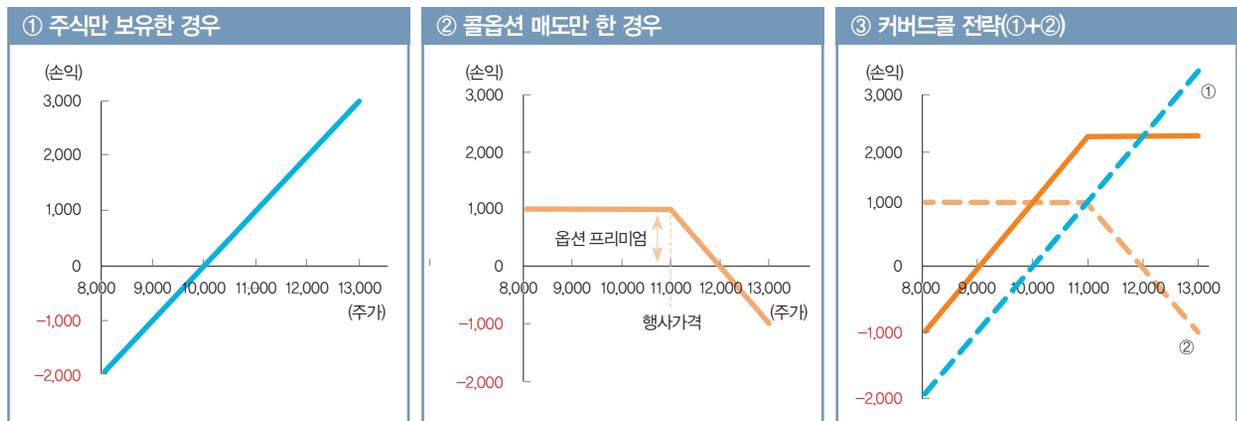
① 주식만 보유한 경우 어떤 주식 1주를 1만원에 매수했다고 해보자. 주식만 보유한 경우 수익은 주가 변동에 따라 비례한다. 예컨대 주가가 1만2000원으로 오르면 2000원 이익, 8000원으로 떨어지면 2000원 손실이다.

② 콜옵션 매도만 한 경우 다음으로 콜옵션 매도만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콜옵션 행사가격은 1만1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콜옵션 매도에 대한 대가로 콜옵션 매수자로부터 1000원의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해보자.

이번에도 주가가 1만2000원으로 오른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1만1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 매도자는 1만2000원짜리 주식을 1만1000원에 매도해야 하며, 1000원의 손실을 입는다. 하지만 콜옵션을 매도할 때 1000원의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총 손실은 0원이다. 만약 주가가 1만3000원으로 더 오른다면 총 손실은 -1000원이 된다. 한편 콜옵션 매수자의 경우 주가가 행사가격 이하라면 굳이 권

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1만1000원 이하라면 콜옵션 매도자의 수익은 1000원으로 고정된다.

③ 커버드콜 전략(①+②)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구조는 기초자산만 보유했을 경우와 콜옵션 매도만 했을 경우를 결합한 것이다. 주가가 1만2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주식만 보유했을 때는 2000원의 이익을 얻지만 콜옵션을 매도했을 경우엔 이익도 손실도 보지 않았다. 따라서 주가가 1만2000원일 때 커버드콜 전략의 총 수익은 2000원이다. 만약 주가가 1만3000원으로 더 오르면 주식만 보유했을 때는 3000원의 이익을 얻겠지만 콜옵션을 매도했을 경우엔 1000원 손실을 입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총 수익은 2000원이다. 이처럼 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해당 커버드콜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은 2000원으로 고정된다. 만약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면 주식만 보유했을 경우엔 2000원 손실을 보지만 콜옵션을 매도했을 경우엔 1000원 이익을 얻는다. 이때 커버드콜 전략의 총 손실은 -1000원이다. 그 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행사가격인 1만1000원을 기준으로 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최고 이익은 2000원으로 고정되며, 비록 1000원의 프리미엄을 얻긴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에 비해 손실 폭도 깊어진다. 이처럼 하방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하면서 상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 전략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장세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M**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월급의 빈자리 채울 때 꼭 챙겨야 할 네 가지



Editor **김동엽** 미래셋투자외연금센터 상무

■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이미 정년(60세)을 넘겼고, 2차 베이비부머(1968~74년생)도 정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다달이 받던 월급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은 월급 없는 삶이 아쉬움을 넘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베이비부머들이 월급을 대신할 소득원으로 매달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ETF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를 활용해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커버드콜 ETF는 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커버드콜 ETF의 기초지수가 하락하면 투자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매달 받기로 기대했던 분배금 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은퇴

자금을 모두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험에도 분배금을 소득에 활용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투자에 앞서 4가지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Check List 1. 적절한 투자금액을 정한다

우선 커버드콜 ETF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다음의 4가지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먼저 적절한 노후생활비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 이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부가 적정하게 살아가는 데 월평균 3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다. 각자 라이프스타일이 다르고 생활 규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

다음 할 일은 이미 준비한 소득원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몇 살부터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필요한 노후생활비에서 공적연금과 주택연금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을 빼면 부족한 생활자금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후생활비 부족분에서 얼마를 커버드콜 ETF 분배금으로 채울지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후생활비로 월 500만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이용해 월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면, 매달 200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 중 얼마를 커버드콜 분배금으로 채울지 정해야 한다.

매달 필요한 분배금 규모가 확정되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할 금액을 정할 차례다. 이를 위해선 분배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분배금으로 채운다고 계획했을 때 연간 분배율이 12%인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1000만원이, 분배율이 6%인 상품에 투자한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투자하려는 커버드콜 ETF의 과거 분배금 지급률을 확인한 다음 이를 역산하면 투자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배금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금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커버드콜 ETF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분배금의 안정성이다. 둘째는 ETF의 회복탄력성이다.

Check List 2. 분배금의 안정성을 살핀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월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안정적이고 계획된 삶을 꾸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분배금을 노후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달 받는 분배금이 들쭉날쭉하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를 고를 때 분배금의 안정성을 살펴야 한다.

분배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제시되어 있는 커버드콜 ETF의 마케팅 자료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실제 분배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ETF 분배금의 과거 지급내역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Check List 3. 회복탄력성을 점검한다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을 매도해 안정적으로 분배금 재원을 확보하는 대신 향후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을 포기한다. 이처럼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도 향유하지 못하고, 또 기초자산이 크게 하락했을 때 손실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투자자가 커버드콜 ETF를 매수하자마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다. 이후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의 자산가치는 이를 쫓아가지 못한다.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때 이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할 때, 전통적인 커버드콜 ETF의 회복탄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초자산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에 비례해 지급되는 분배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금 감소분 역시 회복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분배금 활용 계획에 매우 큰 애로사항을 겪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가격 상승을 쫓아 ETF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콜옵션 매도 비중을 기초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예를 들면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성과의 50%라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또 다른 단점이 있다. 콜옵션 매도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프리미엄이 줄고, 결국 투자자에게 지급할 분배금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 높아지겠지만 필요한 만큼 분배금을 받기 위해선 해당 커버드콜 ETF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커버드콜 전략은 다시 한번 진화했다. 콜옵션 만기와 매도 주기에 변화를 준 것이다.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은 만기 1개월짜리 콜옵션을 매월 1회 매도했는데, 진화된 방식에 따르면 만기가 더 짧은 콜옵션을 더 자주 매

도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만기 1개월 짜리 콜옵션을 월 1회 매도할 때 얻는 프리미엄보다 만기 1주일짜리 콜옵션을 월 4회 매도했을 때 얻는 프리미엄이 더 많다.

결국 더 짧은 만기의 콜옵션을 더 자주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더라도 전통적인 커버드콜 전략과 동일한 수준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즉, 분배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줄여 기초자산 가격 상승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커버드콜 ETF의 경우 분배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회복탄력성이 높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어떤 종류의 자산군인지도 살펴야 한다. 변동성이 큰 성장테마주는 상승 잠재력이 높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했을 때 회복탄력성도 높다고 여길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S&P500이나 나스닥과 같은 시장대표지수는 역사적으로 장기간 우상향 해왔기 때문에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초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 커버드콜 ETF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커버드콜 ETF에 은퇴자금을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초자산과 옵션 전략을 달리한 커버드콜 ETF에 분산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커버드콜 ETF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옵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eck List 4.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한다

커버드콜 ETF에서 분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할 때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ETF 분

CHECK LIST

커버드콜 ETF 분배금으로 생활하려는 은퇴자의 점검 사항

1. 분배금으로 마련해야 할 월 생활비 규모는 얼마인가?

-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인가? (①)
-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으로 이미 확보한 월 생활비는 얼마인가? (②)
- 부족한 월 생활비는 얼마인가? (=①-②)
- 부족한 생활비 중 얼마를 분배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 분배율 ()%의 커버드콜 ETF를 ()원 투자한다.

2.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

-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투자설명서를 통해 예상 분배금을 확인한다.
- 해당 ETF가 과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해 왔는가?

3. 하락 후 상승장에서 회복탄력성은 얼마나 되나?

- 콜옵션 매도 전략은 무엇인가?
(완전매도, 부분매도, 부분매도+초단기옵션)
- 기초지수는 무엇인가?
- 하나의 ETF에 투자할까, 여러 ETF에 나눠서 투자할까?

4.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 일반계좌에 투자할 것인가,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것인가?

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한다. 다수의 은퇴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M**



#투자와연금TV

#구독 #좋아요 했더니

#연금관리법 #투자꿀팁

내 손안에 쏙!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ETF로 내 노후 Jump Up
- 투자 THE 연금
- 연금 TALK TALK
- 투자살롱
- 돈공책공

“투자와연금TV” 구독은?

YouTube 에서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로 검색하세요!





3040세대도 찾는 커버드콜 ETF 투자 시 유의사항은?

Editor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연구원

■ 커버드콜 ETF는 3040세대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증권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커버드콜 ETF 투자자 중 40대 이하가 약 60%를 차지했다. 이들이 커버드콜 ETF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분배금 재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커버드콜 ETF 투자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염두에 두어야 할 점들이 있다.

커버드콜 ETF vs 토털 리턴 ETF

먼저 토털 리턴(Total Return) ETF라는 상품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토털 리턴은 분배금 재원을 알아서 재투자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KOSPI200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KOSPI200에 재투자한다. 이러한 ETF는 커버드콜 ETF 대비 장기 성과가 더 나을 수 있다. 커버드콜 ETF는 구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의 성과를 100%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털 리턴 ETF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커버드콜 ETF는 미국 시장대표지수, 성장테마주 등 기초자산이 다양하다. 반면 토털 리턴 ETF는 상품 대부분이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며 그 외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부 가치 상승분을 포기하더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장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 분배금을 재투자에 쓰지 않고 직접 사용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하려면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토털 리턴 방식보다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토털 리턴 ETF가 아닌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을 정해야 한다. 이때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켓 타이밍을 노린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재투자를 고려 중인 자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기다려 분배금을 쌓아 놨다가 타이밍에 맞춰 저가 매수하는 식이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첫째로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일반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로 저가 매수할 여지를 주지 않고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상승분을 놓치게 된다.

대신 마켓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분배금이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시장대표지수와 같이 역사적으로 우상향 하는 자산에 꾸준히 재투자한다면 간혹 부침이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성공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마켓 타이밍을 잡기 위해 주식시장을 지켜보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 직장생활 등 본업에 충실할 수 있다.

절세계좌 중개형 ISA 활용 고려할 필요 있어

현재 커버드콜 ETF 중 대부분 투자되고 있는 상품은 해외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분배금 전액은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분배금 발생 즉시 원천징수한다. 절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분배금을 활용하려면 절세계좌를 활용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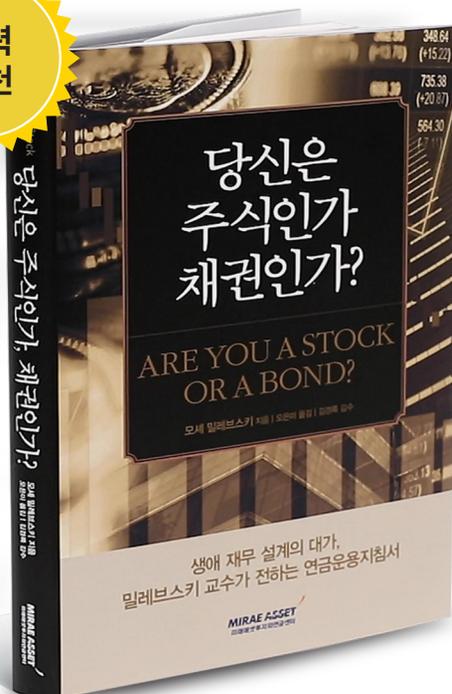
3040세대 투자자라면 절세를 위해 중개형 ISA에서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ISA는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과세이연, 손익통산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또 납입한 원금 금액만큼 과세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 어느 정도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M**

ARE YOU A STOCK OR A BOND?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생애 재무 설계의 대가,
밀레브스키 교수가 전하는 연금운용지침서

강력
추천



은퇴 후 긴 노후생활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모세 밀레브스키 지음 | 오은미 옮김 | 김경록 감수

적립부터 인출까지
개인 연금자산 운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커버드콜 ETF 분배금, 세금·건강보험료도 눈여겨보아야

Editor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팀장

■ 더 높은 분배금을 기대하며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다.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분배금을 소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

ETF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매매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뉜다. 세법에서는 두 소득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커버드콜 ETF 분배금의 재원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기초자산에서 얻는 소득과 옵션을 매도해 얻는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다.

최근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커버드콜 ETF는 S&P500 또는 글로벌 성장테마와 같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한다. 해당 ETF 분배금은 과세 대상이다.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금융회사에서 분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다. 이는 세전 분배금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과세한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는 만큼 분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세금 부

담이 늘 수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유의해야

분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한다. 분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건보료 인상 부담이 커진다.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소득의 8%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본 배당소득 세율의 영향까지 합쳐지면 세전 분배금 금액의 4분의 1가량이 세금과 건보료로 나가는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자격이 박탈된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 활용해 세금 줄이고 건보료 부담 덜고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는 IRP,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계좌가 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연금계좌가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기초자산별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 및 분배금 과세 비교

구분	매매차익	분배금	비고
국내주식형 커버드콜 ETF	비과세	- 주식 배당금 재원: 배당소득세 - 옵션 프리미엄 재원: 비과세	배당소득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그 외 커버드콜 ETF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계좌 종류별 분배금 과세 방식			
구분	일반 계좌	연금계좌	ISA
원천징수 시점	분배금 발생 시	출금 시	계좌 해지 시
원천징수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5.4%	3.3~5.5%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연 1500만원 초과 시 (단, 16.5%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해당사항 없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 시)	미부과	미부과

조건하에 ETF의 분배금을 연금수령할 경우 세법상 이를 연금소득으로 봐서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가입자의 연령이 55~69세일 때는 5.5%, 70~79세일 때는 4.4%, 80세 이상일 때는 3.3%다. 15.4%의 배당소득세율 대비 세금을 10%p 가까이 아낄 수 있다. 또 금융소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는 분배금이 발생한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한다. 이에 따라 세전 금액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개인 연금소득과 퇴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 건보료 걱정도 덜 수 있다. 단, 알아둬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연금계좌에서 출금할 때 자금의 재원별로 출금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연금계좌 자금은 크게 퇴직금,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금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순이다. 과거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실제로 분배금을 출금하더라도 퇴직금 금액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출금한 것으로 본다.

각 재원별로 세율도 다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또는 60%),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3.3~5.5%다. 앞선 예시로 돌아가 보면 분배금을 출금했다라도 퇴직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율은 3.3~5.5%가 아닌 퇴직소득세율의 70%(또는 60%)로 과세된다.

운용수익을 출금하는 단계에 들어섰을 때도 주의할 점

이 있다.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율(6.6~49.5%)이 높을 경우, 종합과세 대신 16.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유동성 높은 중개형 ISA 활용할 수도

연금계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된다. 만약 현금 유동성이 높은 절세 수단을 찾는다면 ISA 계좌를 고려해볼 수 있다. ISA에 가입할 때 역시 ETF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ETF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 ISA다.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ISA에도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우선 계좌 내 모든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순이익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또 ISA 역시 분배금 발생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지할 때 과세한다. ISA에서 발생한 수익은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ISA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의무보유기간 3년 동안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연금계좌와 다르게 ISA는 어느 정도 현금 유동성이 확보돼 있다. 의무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ISA에 납입한 원금 금액 내에서는 세제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분배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연금계좌 또는 ISA를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세금 및 건보료 절감 측면에서 좋다. **M**

S&P500 빅테크 쏠림 부담된다면 동일가중 지수 눈여겨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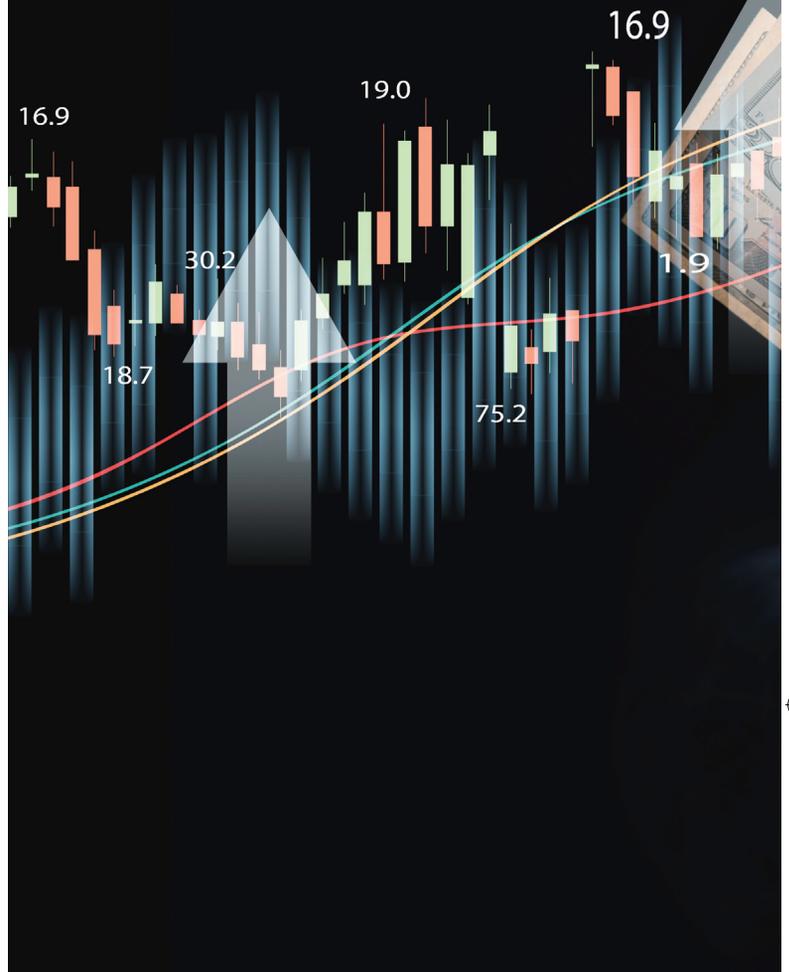
Editor **임종욱**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팀장

■ 2024년도 절반을 훌쩍 넘었다. 올해 상반기도 ETF 시장은 순자산 30조원 이상, 상장 종목 수 50개 이상 늘어나며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상반기에만 10조원 이상 ETF를 순매수했다. 눈에 띄는 점은 미국 투자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상장명에 '미국'이 키워드로 들어간 종목의 순매수 합계가 6조원을 넘었다. 이중 시장 대표지수인 S&P500지수 추종 상품군이 1조4000억원, 나스닥100지수 추종 상품군이 8000억원에 달했다. 상장명에 '미국'이란 키워드가 빠져 있더라도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각종 테마형 상품을 합치면 이보다 수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상품군이 아닌 개별 종목으로 봐도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7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를 보였다.

모든 주식 종목을 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동일가중 지수

시선을 전 세계 투자자로 돌려봐도 미국 주식시장 투자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약간은 독특한 양상이 보인다. 작년 전 세계 주식형 ETF 중 S&P500 동일가중 지수에 투자하는 다소 생소한 ETF가 자금 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 그대로 모든 S&P500 주식 종목에 동일한 비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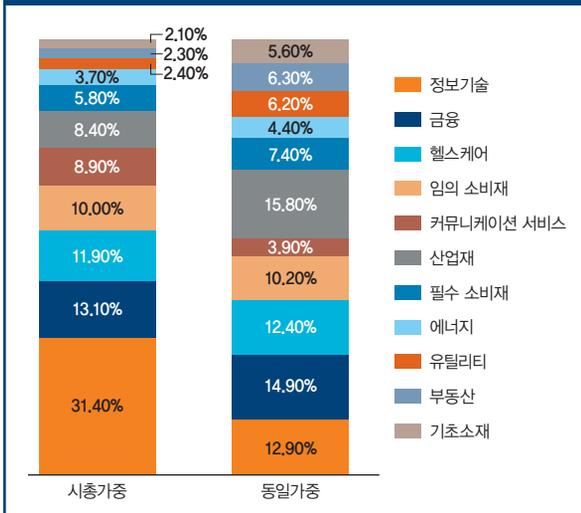
투자하는 ETF다. 본래 S&P500지수는 각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대로 구성되는 시가총액가중 주가지수다. 국내에는 아직 '동일가중'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지만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원래 S&P500 동일가중 ETF는 미국·유럽·캐나다·호주에 상장돼 있었는데, 최근 아시아 최초로 한국 시장에도 관련 ETF가 등장했다.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을 동일가중으로 구성하는 'S&P500 Equal Weight Index'를 추종하는데, 모든 종목을 0.20%씩 편입해 분산투자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2024년 7월말 기준 시가총액가중 방식 S&P500 지수의 경우 IT 섹터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상위 10종목의 비중 합이 34%로 매우 높은 상태다. 반면 동일가중 방식의



S&P500 시총가중과 동일가중 지수 간 섹터 분포 비교



※기준일 2024.07.31

자료:S&P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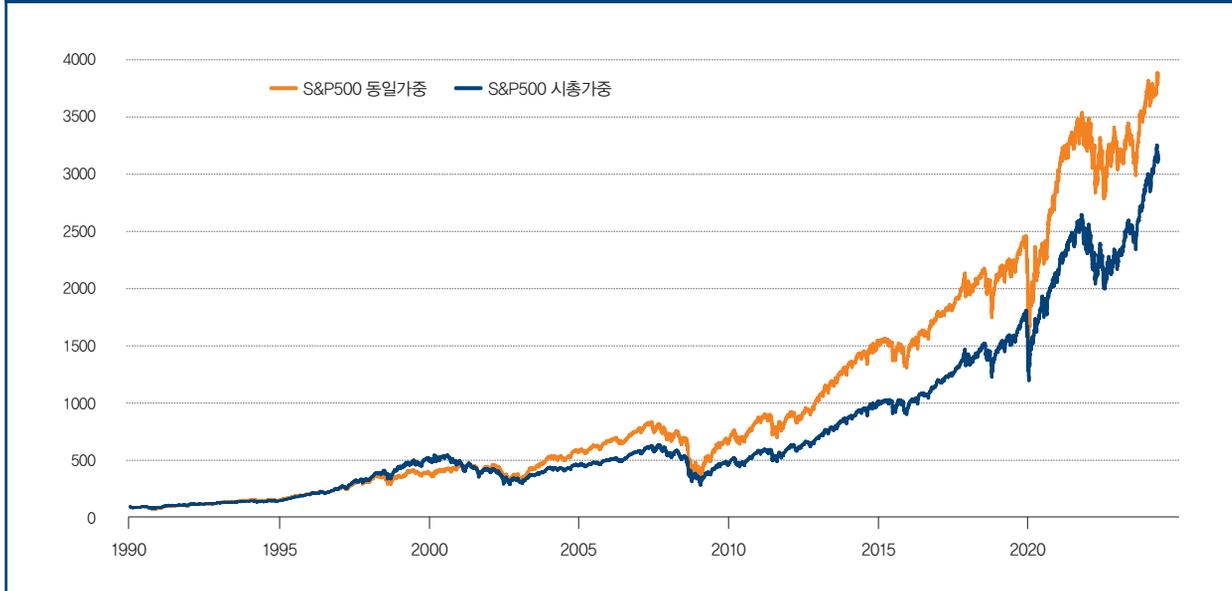
S&P500 시총가중 지수 편입종목 비중 상위 10

시총가중 지수 비중 순위	종목명	비중	
		시총가중	동일가중
1	Apple	6.90%	0.20%
2	Microsoft	6.70%	0.20%
3	Nvidia	6.21%	0.19%
4	Amazon	3.69%	0.20%
5	Meta	2.24%	0.21%
6	Alphabet(class A)	2.17%	0.20%
7	Alphabet(Class C)	1.82%	0.20%
8	Berkshire Hathaway	1.71%	0.20%
9	Broadcom	1.51%	0.18%
10	Tesla	1.39%	0.21%
10종목 비중 합		34.34%	1.99%

※기준일 2024.07.31

자료: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S&P500 시총가중과 동일가중 지수 간 장기 성과 비교



※기준일 1990.01.01~2024.07.31(1990.01.01 = 100)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S&P500 지수는 IT 섹터 비중이 13% 수준이고, 상위 10종목의 비중 합이 2% 미만이다. 결국 동일가중 방식의 포트폴리오는 모든 종목에 대해 동일한 비중을 부과하기 때문에 리밸런싱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동일가중 방식이 시가총액가중 방식보다 장기 성과 앞서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미국 상위 500개 종목을 0.2%씩 균등하게 투자하면서 연 4회 분기마다 필요시 종목 및 비중을 변경한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가 굳이 '오른 주식은 비싸게 팔고, 내린 주식은 싸게 사기' 위해 차익실현과 저가매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리밸런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년간의 장기 성과를 보면, 시가총액가중 방식의 S&P500 지수 대비 S&P500 동일가중 지수가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가중 지수가 시가총액가중 지수보다 장기 성과가 좋다는 결과는 비단 미국 S&P500 지수만이 아니라 일본, 호주 등의 시장 대표지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장기 성과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수익률을 나누어 비교해

도 미국 S&P500 동일가중 지수가 시가총액가중 지수보다 초과 성과를 기록한 연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성과 측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소수 종목이나 특정 업종으로의 쏠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투자 대안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상위 500개 종목을 시가총액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S&P500 지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약 43% 상승했다. 이 중 M7(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 종목은 같은 기간 137%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S&P500 지수 내에서 M7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소수 종목 의존도가 높다 보니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500개 종목을 0.2%씩 동일하게 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나 업종 쏠림이 없다.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는 특정 종목들에 투자가 집중되는 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쏠림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시장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미국 대표 종목에 투자하

고 싶지만, 과도한 집중이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M7 주도에 성적 아쉬웠던 S&P500 동일가중, 금리 인하기에 빛 발하나

2024년 들어 S&P500 지수는 단기간 변동성은 있지만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S&P500 동일가중 지수의 상대 성과는 S&P500 지수 대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IT 섹터를 비롯한 M7 등 소수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S&P500 지수는 크게 상승한 반면,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상대적으로 저점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하락 후 반등장세에서 시가총액가중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하락장,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의 주가 폭락기와 이후 강세장 전환 등의 시기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시장 흐름이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S&P500 동일가중 지수의 움직임에 대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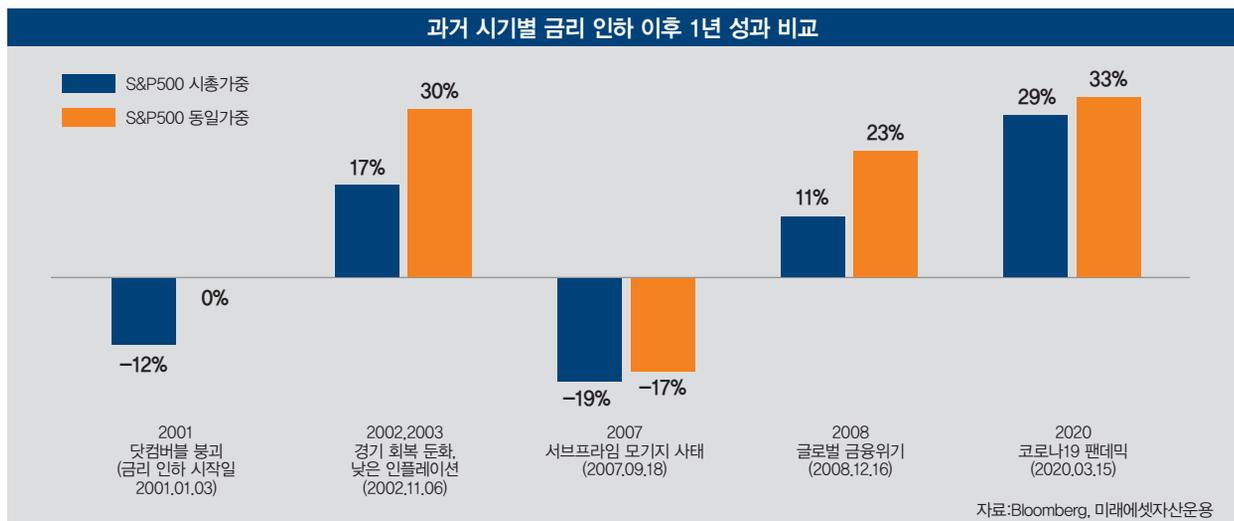
무엇보다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작년 말부터 논의돼 온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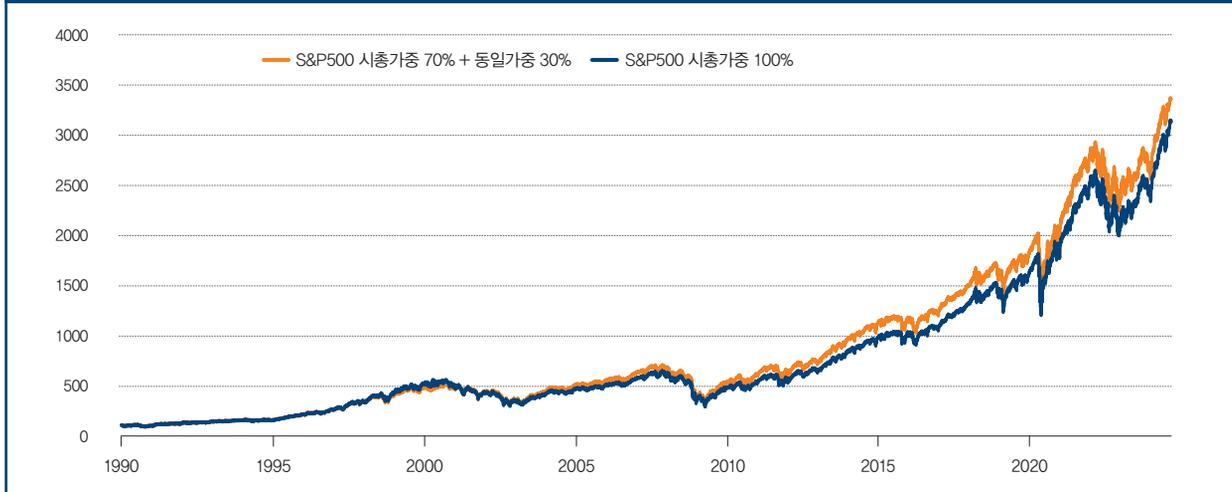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고금리 압박에 억눌려왔던 중소형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는 경기에 민감하고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작년 경기침체와 고금리 압박으로 중소형주가 부진한 성과를 보인 원인이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그간 억눌려왔던 중소형주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있는데, 우선 금리 인하의 단초가 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물가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미국 경제서프라이즈지수, 고용지표 등도 예상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연내 1회 이상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고금리 압박에 억눌려왔던 중소형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는 경기에 민감하고 차입비용 상승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작년 경기침체와 고금리 압박으로 중소형주가 부진한 성과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면 오히려 그간 억눌려왔던 중소형주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S&P500 시총가중 100% vs S&P500 시총가중 70% + 동일가중 30% 누적수익률



※기준일 1990.01.01 ~ 2024.07.31 (1990.01.01 = 100), 매 연말 비중 재조정 가정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자산운용

실제 S&P500 동일가중 지수는 시가총액가중 지수 대비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면 성과가 아웃퍼폼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 닷컴버블 붕괴, 2002년 경기회복 둔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지수의 1년 성과를 비교해 보면, S&P500 시가총액 방식에 비해 S&P500 동일가중 방식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소수 주도장세 부활 시 성과 불리할 수도

문제는 모든 전망이 그렇듯 금리 인하의 정확한 시기와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MAGA, FAANG, M7 등 일부 종목이 바뀌긴 했으나 장기간 소수 종목이 시장을 주도해 왔던 추세가 단기간 다시 부활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소수 종목이 주도하는 장세가 다시 시작된다면 상대적으로 해당 종목 비중이 적은 동일가중 방식의 성과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 S&P다우존스 인디시즈(S&P Dow Jones Indices) 자료에 따르면 S&P500 동일가중 지수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S&P500 시가총액가중 지수의 연환산 변동성은 지난 10년간 15.31%, 5년간 18.08%, 3년간 17.86%였다. 반면 동일가중 지수는 지난 10년간 16.73%,

5년간 20.08%, 3년간 18.35%로 나타났다.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면에서 동일가중 방식의 분산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소형주 비중이 시가총액가중 방식보다 높기 때문에 동일가중 지수의 변동성이 높은 것이다.

S&P500 투자한다면 일부 동일가중 지수에 분산하는 것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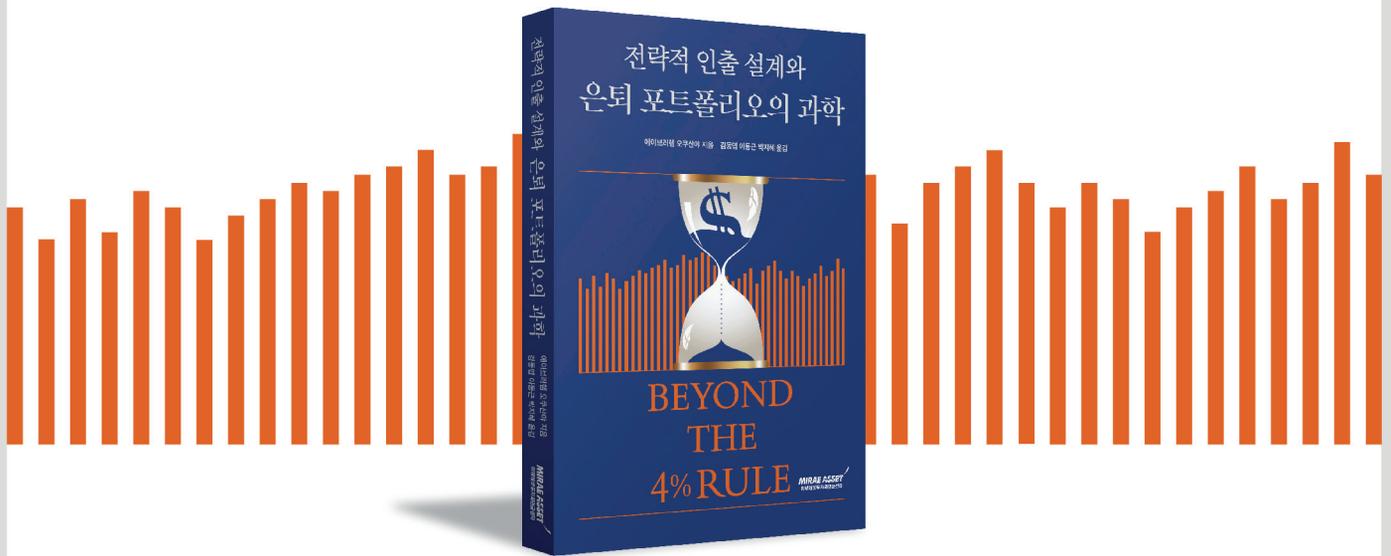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도 좋다. 예컨대 S&P500 시가총액가중 지수에 70%, S&P500 동일가중 지수에 30%를 섞어 투자하는 식이다. 누적수익률에서 S&P500 시가총액가중 지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장기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 시가총액가중 지수에 100% 투자할 때보다 위험 대비 수익률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구간이 많다.

결국 S&P500 동일가중 지수에만 투자하기에는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오를 때 아쉬울 것 같고, S&P500 시가총액가중 지수에만 투자하자니 금리 인하기 혹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때 아쉬울 것 같다면 함께 투자하는 것도 미국 투자에 대한 좋은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M**

전략적 인출 설계와 은퇴 포트폴리오의 과학

에이브러햄 오쿠산야 지음 | 김동엽 이동근 박지혜 옮김

국내 금융권 최초 노후자금 인출 지침서
노후자금 '인출' 전략은 '적립' 전략과 다르다!



BEYOND THE 4% RULE

- ✓ 인출 전략의 권위자, '4% 법칙' 창시자 윌리엄 벤겐의 강력 추천!
- ✓ 수명과 지출, 물가 변화를 고려해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은?
- ✓ 자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노후자금의 인출 기간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자문센터

“푸른씨앗의 안정적 운용 성과 30인 이하 중소기업장에 빠르게 입소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누적수익률 12.6% 이상
운영기관 행정 전문성과 전담운용기관 투자 전문성 시너지 성과



김완석(왼쪽) 근로복지공단 부장과 이관순 미래에셋증권 팀장.(사진:이원근)

Interviewer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 2022년 9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른바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다. 기업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계정에 납입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관리감독 아래 전담운용기관이 기금을 운용한다. 근로자는 퇴직 시 기금 운용에 따른 성과까지 포함해 퇴직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푸른씨앗은 2023년 7%의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 5.2%보다 2%p가량 높은 성적을 거뒀다. 푸른씨앗 출범 후 설정한 5년 중장기 목표수익률은 연평균 4.4%인데, 시작부터 좋은 성과를 올린 셈이다.

푸른씨앗의 투자 및 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운용기관은 운용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글로벌 증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자산배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지고 있을까. 앞으로 운용목표는 무엇이고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푸른씨앗 운용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계획부 김완석 부장과 전담운용기관 중 하나인 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퇴직기금운용팀 이관순 팀장을 인터뷰했다.

푸른씨앗이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입 대상인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용 규모나 사업장, 가입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김완석 부장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푸른씨앗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기준,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약 1만 8000개소, 가입 근로자는 8만3000명, 적립금 규모는 6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했으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동안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담운용기관을 통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 성과가 30인 이하 중소사업장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적립금 운용을 가입자가 직접 하지 않고 운용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인데, 기금으로 운용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관순 팀장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퇴직연금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운용을 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하고, 편입할 상품을 선정하고, 글로벌 증시를 모니터링하면서 적시에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래서 대부분 퇴직연금 가입자는 은행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넣어 두고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에도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퇴직연금의 10년간 평균수익률이 2.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이러한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담운용기관의 자산배분 역량과 각 자산군별로 선정된 개별 운용사의 차별화된 운용 역량을 결합하고 금융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푸른씨앗의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본격 출범한 이후 현재 수익률은 어느 정도이고,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김완석 부장 “푸른씨앗의 7월 18일 기준 누적수익률은 12.6%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7.0%의 수익률을 올렸고, 올해도 7개월여 만에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의 5년 중장기 목표수익률이 연평균 4.4%인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관순 팀장 “전담운용기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자금과 안전자산인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하다가 2023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외주식·해외채권·국내주식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하락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채권 듀레이션을 짧게 운용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었고, 10월 이후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목표 대비 초과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푸른씨앗 기금은 노사정 대표와 정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인
 ‘기금제도운영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계획을 결정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운용기관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석 근로복지공단 부장

**5년 중장기 목표수익률 및 2024년 자산배분계획은 어떻게 정
 해졌나요?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채권
 을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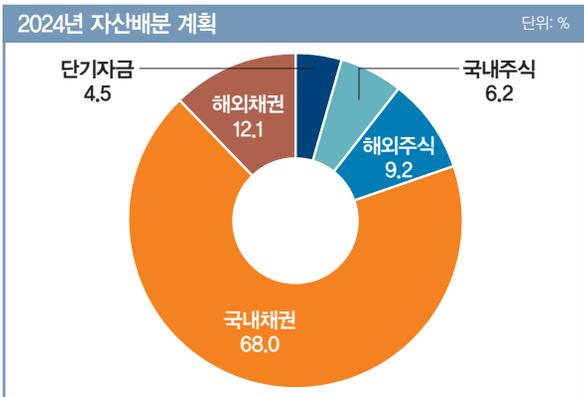
김완석 부장 “푸른씨앗 관련 모든 의사결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산배분계획이나 목표수익률은
 기금 운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
 의·의결합니다.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투자전략
 위원회에서 정책관리 전망치, 근로자 임금상승률과 기준금
 리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출한 수치를 토대로
 기금제도 중장기 및 당해 연도 목표수익률을 설정합니다. 목
 표수익률을 정하고 나면 국내채권·해외채권·국내주식·해외
 주식·대체투자 등 자산군에 대한 중장기 기대수익률과 위험
 수치 등을 추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의 자산배
 분계획을 결정하고, 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
 쳐 확정합니다.”

이관순 팀장 “자산배분계획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외

채권자산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약
 정한 이자를 확정해 주는 안전한 자산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수익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의 소중
 한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성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그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 바로
 채권입니다. 더불어 기금의 일부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채권
 보다 기대수익이 좀 더 높은 국내의 우량주식에 배분하고 있
 습니다. 성격이 다른 자산 간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은 줄이
 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운용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이 채권 위주로 운용되고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가입자들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
 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김완석 부장 “푸른씨앗 운영구조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표와 정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
 성된 독립적 기구인 ‘기금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
 다.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전략
 위원회와 함께 투자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
 회,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등 3개
 의 자문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계획이 확정되
 면 적립금 운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운
 용기관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채권과 주식의 비중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성과
 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강점인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직접 좋은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푸른씨앗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고 2023년 7%, 누적수익률 12%가 넘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관순 미래에셋증권 팀장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실질적인 운용은 투자전문가에 게 맡겨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순 팀장 “기금 가입자들께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푸른씨앗 설명회 현장을 다녀보면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의 사례로 설명이 가능할 듯한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푸른씨앗 자산배분계획대로 운용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어느 시점에 가입했다 라도 5년 동안만 가입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5.0%의 수익률을 이룰 수 있었고, 원금 손실을 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즉, 푸른씨앗에 가입하고 충분한 투자기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전담운용 기관은 수익률 향상에 집중함은 물론 매일매일의 위험요소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해 푸른씨앗의 안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포함한 최근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목하고 있는 투자자산은 무엇인가요? 위험요인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관순 팀장 “올해 상반기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내외 모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자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운용했습니다. 전담운용기관에 부여된 투자 허용 범위 내에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배분비율을 높였고, 전망에 부합하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안정세에 따라 채권자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글로벌 정세 불안 등 다양한 변수와 경제 상황 등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자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푸른씨앗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께 퇴직연금 관리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관순 팀장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께서 바쁜 일상과 투자정보 부족 등으로 좋은 상품을 직접 고르고 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투자해 주는 푸른씨앗을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른씨앗은 2023년 7.0%, 누적수익률 12%를 넘는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갖춘 푸른씨앗에 가입해 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완석 부장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 동안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재정지원과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푸른씨앗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공익성과 전담운용기관의 전문성을 믿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을 유지해 주신다면, 푸른씨앗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채권 사다리 전략’ 응용해 개인투자용 국채로 ‘자가 연금’ 만드는 법

Editor 이규성 미래셋투자외연금센터 선임연구원

■ 최근 들어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개인 채권투자 금액은 2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9조2000억원)에 비해 20.3% 늘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이 실현을 목표로 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자산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다. 채권 또는 채권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대할 수도 있다. 여러 채권의 만기가 찾아올 때마다 원리금을 받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려고 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한다면 응용할 수 있는 채권투자 전략이 있다. 채권도 주식처럼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다. 그중 채권 사다리 전략을 응용하면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가 연금’(self-annuity)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활용해 자가 연금을 만들 환경이 갖춰졌다. 우선 채권 사다리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개인투자용 국채란?

개인이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청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는 국채로, 종목은 10년물과 20년 물이 있으며 각각 발행수량이 정해져 있다.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이자로 지급하며 매입액 기준 총 2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5.4%로 분리과세한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정해진 총량 내에서 신청을 받으며 중도환매하는 경우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받지 못한다.



잔존만기별 채권 분산투자, 만기 때 재투자하는 채권 사다리 전략

채권 사다리 전략은 같은 종류의 채권을 잔존만기별로 분할 매수해 놓는 전략이다. 예컨대 어떤 채권의 만기가 1년부터 10년까지 1년 단위로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다면 각 채권에 균등하게 은퇴자금을 나누어 투자하는 식이다. 이렇게 채권 사다리를 구축해 놓으면,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이후 주기적으로 만기별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받게 된다.

채권 사다리 전략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우선 잔존만기별 채권마다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있다. 반대로 채권 만기 시마다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도 있다. 동일금액 납입 방식은 같은 금액을 채권 만기별로 분산해 투자하면 되는 보다 직관적인 방식이다. 반면, 동일금액 수령 방식은 미래에 받을 원리금을 정해 놓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만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투자금 또는 상환금을 기준으로 채권 사다리 전략

은 달리 응용될 수 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채권 사다리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일 채권을 잔존만기별로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장내 채권시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불리한 가격에 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면서 개인투자자가 채권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채권 사다리 전략을 응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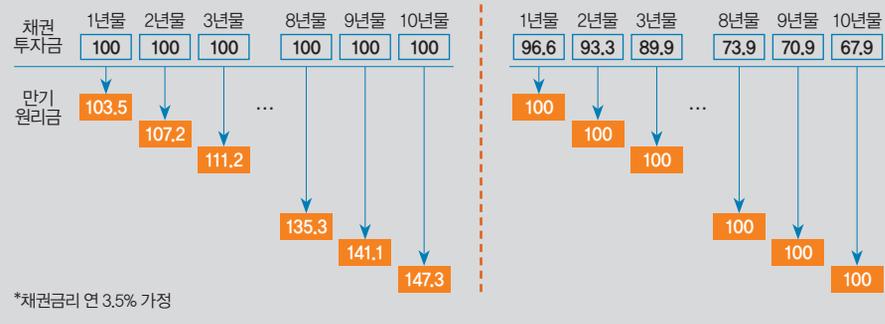
개인투자용 국채 적립식 투자로 자가연금 만들 시장점 3가지

본래 채권 사다리 전략은 목돈을 여러 만기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면 채권 사다리 전략을 활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에 매월 일정 금액을 10년간 투자했다고 해보자. 10년의 투자기간이 끝나고 첫 번째 만기가 도래한 이후로는 10년간 매달 채권 원리금을 받을 것이다. 매월 투자한 채권은 모두 만기가 10년으로 같은 채권이지만 각기 다른 시기에 투자함으로써 마치 만기가 다른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채권 사다리 전략을 구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또 이로써 주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가 연금이 구축되는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자가 연금을 만들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가산금리가 더해져 같은 조건의 일반 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채권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일금액 납입 방식 vs 동일금액 수령 방식 비교 예시



두 번째는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다. 채권 가격은 금리 변동과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따라서 만기 전 채권을 매도하거나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 ETF 등에 투자했다면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채권 사다리 전략의 목표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식 등 변동성 높은 자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운용 중이라면 시퀀스 리스크(sequence risk)를 완화할 수 있다. 시퀀스 리스크는 같은 정도의 손실이더라도 은퇴 후기보다 은퇴 초기에 입을 시 회복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내포한 위험이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복구하기 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의 일부를 매도하고 출금하면 노후자산 규모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된다. 따라서 은퇴 초기에 손실을 입는 경우 은퇴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시퀀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려면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하면서 손실 위험을 줄여야 한다.

포트폴리오에 주식 비중이 많거나 금리 변동에 취약한 채권형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퀀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일부를 개인투자용 국채 적립식 투자에 할애했다면 시퀀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비교적 금리 변동에 덜 영향을 받으며 주기적으로 채권 원리금이 들어와 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채권 사다리 전략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M**

‘요양에 진심인’ 사람이 모여 통합 요양 서비스 기업 일군다

Editor **이필재** 인물스토리텔러

■ “요양 서비스는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대면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걸어와 서비스를 받을 부모님의 특성·증상·선호 등에 관해 30분 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앱조차 없어요.”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의 김태성 대표는 “앱을 만든 회사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말했다. 요양 서비스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이 시장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객은 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케어링은 국내 요양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2위 회사와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 그런데도 점유율은 2%가 채 안 된다. 요양 서비스가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95%가 개인사업자다. 김 대표는 “이렇게 파편화돼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좋은 방문요양·주간보호 센터장들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기업들이 몰정 모르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철수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는 30·40대가 장차 요양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면 앱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요양 서비스 업체 중 유일하게 100% 직영

개인사업자들은 방문요양과 주간보호 중 한 가지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그래서 통합 재가 요양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용 당사자인 어르신들은 두 가지 서비스를 다 원할 수도 있다. 평소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지만 어느 날 방문요양을 받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는 IT 쪽에 종사했던 사람과 요양업을 10년 이상 한, 말하자면 ‘요양에 진심인’ 사람이 팀을 이뤄 일합니다.

생각이 서로 달라 갈등도 겪지만 각자 장점을 살려 통합 요양을 실현해 기업으로서 성장하려는 거죠.”

케어링은 국내 요양 서비스 업체 중 유일하게 100% 직영이다. 전국적으로 46개 기관을 직영한다. 주간보호센터 21곳, 방문요양센터 19곳 등이다. 다른 업체는 프랜차이즈이거나 중개만 한다. 김 대표는 “직영으로 운영해야 어르신들에 대한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소속 요양보호사 수는 약 1만 명, 누적으로는 1만5000명에 이른다. 요양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만2000명이다. 요양 서비스는 거의 1 대 1로 이뤄져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수가 비슷하다.

케어링의 요양보호사 시급은 시장 평균보다 5%가량 높다. 적게 주는 센터에 비하면 20% 정도 더 지급한다. 업계 최고 수준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케어링을 선호하는 배경이다. 케어링 근무를 희망하는 요양보호사가 4만5000명에 이르고 한다. 김 대표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풀려면 경제적 처우와 더불어 심리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 요양보호사를 하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케어링이 지난해 요양보호사 2500분을 모시고 콘서트 ‘케어링 요양보호사랑해 축제’를 한 배경입니다. 요양업 종사자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우리 회사가, 이분들이 감사한 존재라는 걸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도 합니다.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병행하는 분들이죠.”

그는 자체 조사를 해보면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보호자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보호자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를 교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체된 분이 다른 어르신에게 서비스할 땐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결국 서로 합이 잘 맞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매칭의 고도화에 집중합니다.”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김태성 대표. (사진: 이정훈)

장기적으로도 직영 정책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계속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직영이 아니면 사실 서비스 퀄리티의 컨트롤이 어려워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본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센터별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도 본사가 책임을 지지 않죠. 일본의 요양 서비스 업체는 그래서 모두 직영입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직영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직영을 하면 리스크가 커지고 운영도 힘들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져야 건강보험 지출 줄고 세금도 절약”

케어링은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나요?

“어르신이나 요양보호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이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문제 발생의 빈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을 케어하지만 가장 문제가 적게 생기고 갈수록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죠.”

대형 대학병원에 환자 데이터가 쌓이듯이, 다종다양한 어르신 관련 데이터가 내부에 축적된다는 것이다.

케어링은, 앱도 없는 회사가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을 표방합니다. 무슨 얘기죠?

“어르신 관리의 솔루션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휴먼 터치가 제대로 되려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관리가 대형 병원의 전자 차

트처럼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관리 시스템 효율화는 고령사회화하는 국가에 마치 숙명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금, 시간 등 막대한 자원이 케어를 받아야 할 어르신에게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정작 서류 관리에 쓰일 수도 있어요. 기술을 이용해 서류 관리를 효율화해야 할 이유죠.”

케어링의 주간보호센터 광주 남구점은 피부 마사지와 관련한 뷰티, 스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 주간보호센터다. 새치 염색의 경우 실비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2008년에 생긴 1세대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만 제공했다. 2세대는 운동을 시켰다.

“어르신 가운데 할머니가 많은데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하세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3세대 센터를 실험적으로 선보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장차 전국화하려고 합니다.”

그는 뷰티 앤 스파 콘셉트는 세계적으로 유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요양 서비스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를 기반으로 요양과 헬스케어를 연결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건강해져야 건강보험 지출이 줄고 세금도 절약돼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초고령사회에 곧 진입하는 우리나라를 덮칠 건강보험의 높은 파고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요양 서비스 면에서 우리보다 앞섰지만 ‘요양은 여기까지’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려 한



다는 인상을 받아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네 곳을 직영한다. 자격증이 따로 없고 사적 고용을 하는 간병인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는다.

‘대한민국에 요양 인프라를 구축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돌봄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케어링의 슬로건이다. 전국적으로 차별 없는 노인 돌봄을 통합 요양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이 회사의 의지가 담겼다. 요양 인프라는 주간보호·방문요양 외에 복지용구, 레지던스(스테이), 요양보호사 교육 등을 포괄한다. 시니어 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케어링의 비전이다.

“서울 강남구엔 임차료가 비싸 주간보호센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문요양을 주로 이용하죠. 방문요양과 달리 주간보호는 임차료에 따라 센터의 수익 차이가 커요. 그런데도 주간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급여)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서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구조적으로 역차별을 받습니다. 시장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올해 매출 목표 1200억원, 해마다 두 배 수준 성장

2019년 가을 설립된 케어링은 2년 반 만에 350억원의 시리

즈A 투자를 유치했다. 또 100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예비 유니콘 기업이 됐다. 지난 2월엔 400억원을 투자 유치했다. 올해 매출액 목표는 1200억원. 설립 이래 해마다 두 배 수준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케어링은 어시스턴트 리빙 유닛이라는 이름의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요양원 사이의 중간지대다.

“케어가 필요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어르신을 위한 주거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중간이죠. 1, 2인실 중심의 주거인 케어링 스테이와 건강이 더 안 좋은 어르신을 위한 1, 2인실 중심의 요양원인 케어링 빌리지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케어링 창업 전 게임 데이터 분석 회사, 커머스 기업 등에서 일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것이 복합 산업인 요양 서비스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앱 사업도 했지만 요양 서비스 앱은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만들겠다고 했다.

대학에서는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그 시절 카피라이터가 꿈이었다. ‘남의 회사 카피를 쓰고 있느니 내 회사 카피를 써야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요양 종사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라고 보나요?

“스킬보다도, 이용자인 어르신, 보호자에 대한 애뜻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가사 서비스와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수가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하고, 수요에 비해 점점 부족해질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뒀는데 이제 이들이 케어 받아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일본처럼,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 방치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 요양보호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돼요. 일본의 경우 3년 이상 종사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그는 이미 시작된 고령자 혐오에 우리 사회가 대처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가로서의 비전이 뭔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최대한 늦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케어링의 목표이자 저의 비전입니다. 방문요양업을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가 빨리 받고 싶지는 않아요. 인지상정이지요.”

GLOBAL SENIOR STORY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 온 선진국들의 시니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정책적·문화적·관계적 뒷받침을 통해 시니어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선진국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독일 독일 시니어들 온라인 소통 활발, SNS보다 정보성 웹사이트 선호

미국 병원 가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재택 카운슬링·테라피 서비스가 큰 도움

일본 고령자 재취업 새로운 실현, '모자이크형 취업' 뜬다

호주 은퇴 연령 점점 높아져, 지금 20세는 70세까지 일할 수도



독일편

독일 시니어들 온라인 소통 활발,
SNS보다 정보성 웹사이트 선호

매일 인터넷 사용한다고 답한 비중 80% 달해

Editor 김수민 독일 베를린대학 박사과정

■ 50세 이상 독일인 두 명 중 한 명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근래 독일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만남에 성공해 결혼까지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소셜 미디어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시니어들이 모여 활동하는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이다.

인터넷으로 관계망 형성, 더 이상 낮설지 않아

독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에서 2020년 사이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1200만 명에서 18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오늘날 유럽 국가들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시니어들끼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다. 시니어들은 으레 혼자서 지내거나 고립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고정관념은 늘 존재한다.

채팅 앱이나 데이트 앱,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우리 생활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독일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친구를 만나 사귀고 관계를 맺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젊은 세대와 달리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인터

넷에서는 우선 가상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까닭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시니어에게는 매우 낯설게 여겨질 수 있다.

독일 시니어들, SNS나 메신저 외에
다양한 웹사이트 애용

미디어 교육 분야 연구기관인 MPFS(Medienpädagogischer Forschungsverbund Sudwest)는 2021년 60세 이상 독일 인구의 웹 서핑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심(SIM) 연구(SeniorInnen, Information, Medien-Studie 2021)'라는 연구에서 시니어 77%가 왓츠앱(WhatsApp)을 비롯한 다양한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중 64%는 이 앱들을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 검색엔진과 이메일 활용 등 인터넷을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중이 80%에 달했다.

그렇다면 독일의 시니어들도 새로운 친분을 쌓고 지인들과 교류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까. 잘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독일의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하겠지만 독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다. 그러나 독일의 시니어들 사이에서 실상 페이스북이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시니어들은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웹사이트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뉴스와 매거진, 각종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과 관련돼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 가운데 특히 시니어를 겨냥해 만

- UNSERE RUBRIKEN
- FAMILIE
 - AHNENFORSCHUNG
 - FAMILIENFEIERN
 - GEBURTSTAG
 - FAMILIENLEBEN
 - FAMILIENTREFFEN
 - KONFLIKTE IN DER FAMILIE
 - TOD UND STERBEN
- FINANZEN
- FIT & AKTIV
- GESUNDHEIT
- REISEN
- SHOPPING
- TECHNIK



FAMILIENFEIERN

Feste feiern mit der Familie: besondere Feiern im Kreise der liebsten Menschen begehen

genau, wann sich wieder einmal die Gelegenheit ergibt? Darum zögern Sie Anlässe nicht hinaus, sondern begehen Sie sie sobald sie anstehen. Es muss dabei gar nicht immer alles perfekt organisiert sein und auch keine langfristigen Einladungen

guten Sekt öffnen, der seit ein paar Jahren im Keller liegt und immer wieder zur Seite geschoben wird, da der Gedanke im Kopf herumspukt, dass der feine Tropfen für einen ganz besonderen Anlass aufgehoben werden soll. Wie lange wollen Sie auf diesen

건강, 금융, 가족 등을 주제로 시니어들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지혜를 모아놓은 사이트 Vivemus.(Vivemus)

들어진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정보성 콘텐츠를 다루는 웹 사이트들은 시니어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과 만나 교류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콘텐츠 소비 넘어 다자간 소통으로, 온라인 교류 넘어 오프라인 만남으로

독일의 50세 이상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웹사이트는 파이어아벤트(Feierabend)다. 이 플랫폼에는 새로운 지인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여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1998년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사교모임 플랫폼 중 하나로 2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테마는 건강과 여행, 돌봄, 디지털 활용에 관한 것이며, 회원들끼리 채팅과 글쓰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또 웹에서의 만남이 자주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단체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야외에서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도 사이트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비베무스(Vivemus) 사이트는 노년기로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비베무스는 '우리는 살아간다(Wir werden lehen!)'라는 모토를 표현한 어구

독일 시니어들은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에 존재하는 다양한 웹사이트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뉴스와 매거진, 각종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과 관련돼 있는 많은 웹사이트들 가운데 특히 시니어를 겨냥해 만들어진 곳이 적지 않다. 이런 정보성 콘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들은 시니어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과 만나 교류하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이다. 여기서는 특히 노년층이 가족을 비롯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려고 시도한다.

시니어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건강, 금융, 가족, 체력·활동, 쇼핑, 여행, 여성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을뿐더러 각자가 지닌 삶의 방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제처럼 시니어의 삶이 더 이상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활동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1998년 설립돼 역사가 깊은 정보성 콘텐츠 웹사이트 Feierabend. 138개 지역에서 20만 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 5만7000개의 갤러리를 형성해 활동 중이다.(Feierabend)

50세 이상을 회원으로 모집해 30만 명이 이용 중인 만남 주선 사이트 Lebensfreude50. 이성 교제뿐 아니라 단체 여행 주선 서비스도 제공한다.(Lebensfreude50)

정보성 콘텐츠 제공이 아닌, 아예 사교모임을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도 인기를 끌고 있다. 리븐스프로이트50(Lebensfreude50)은 2006년에 만들어진 사이트로 새로운 친구나 파트너를 구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미 1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개설 이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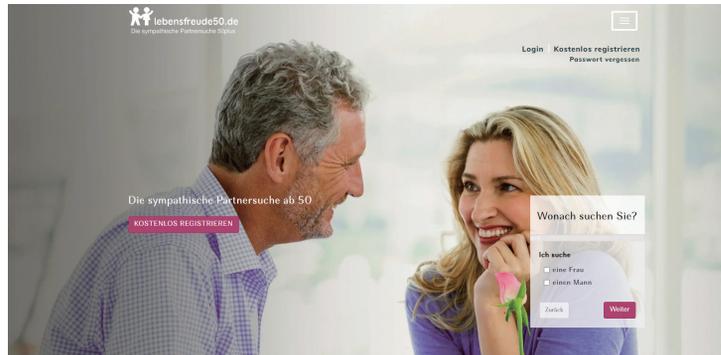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점점 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이 플랫폼을 방문해 온라인 친구를 만들려는 수요가 늘었다. 이 플랫폼을 찾은 방문객들은 홀로 또는 단체 여행객을 위한 색다른 여행상품을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있다. 회원들끼리 채팅이나 웹사이트 내 블로그를 개설해 공통 관심사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독일, 웹사이트 이용에도 예외 없어

소개한 플랫폼들은 독일에서 꽤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이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가 존재한다.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는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시니어 유저들이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공통된 주의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거주지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의 비밀 번



호와 같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는 타인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둘째, 사진을 올릴 때는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뿐 아니라 자신이 올린 사진이 공공에 노출되었을 때 적합한 사진인지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다.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자신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이트 내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자세히 읽을 것을 권장한다.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는 이용자가 올리는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의 인터넷 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보다 신중히 읽어 본 후 이용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넷째, 만약 플랫폼을 이용하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이트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 이를 알리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실수로 치부하거나 그저 조용히 넘기려고 한다면 뒤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M

노후가 풍족해지는 나만의 비법 이제 연금이 쉬워집니다



매주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절세

개인연금

ETF

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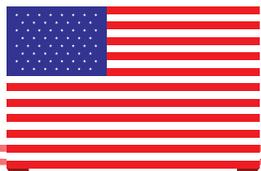
자산배분

연금화

퇴직연금

TDF





미국편

병원 가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재택 카운슬링·테라피 서비스가 큰 도움

간호사·심리상담사가 환자 집 방문치료...메디케어 포함돼 의료비 부담 덜어

Editor 이경원 텍사스주립대 교수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500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2050년까지 치매 환자 수는 1억5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600만 명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치매 발병률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65세 이상 미국인 중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인 경우 32%가 치매 진단과 함께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병원과 요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카운슬링과 다양한 테라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이러한 서비스를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시설 접근성 떨어지는 치매 환자, 재택 서비스 반겨

치매 환자들은 발병 초기라 해도 운전을 권장하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운전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매 전문 카운슬링이나 테라피 서비스가 의료시설에서 제공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



다. 가족 간병인의 경우 배우자 간병인은 본인들 역시 운전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 또한 치매에 걸린 가족을 위해 운전을 해주는 것과 다른 온갖 개인적인 일들 사이에서 시간을 조율하기 쉽지 않다.

64세에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남편과 함께 집에서 치매 카운슬링을 받아온 한 여성은 초기에는 의료시설에 카운슬링을 받으러 갈 때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계속 상기하게 돼 마음이 불편했다고 한다. 초반에 상담을 통해 치매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만 카운슬링을 추천한 딸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돼 훨씬 편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한다.

“이렇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니 너무 편합니다. 남편도 이제 나이가 있어 고속도로 운전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가야 했을 때는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아예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치매 환자의 집을 방문해 약물 관리나 기본 건강 진단을 진행하기도 한다. 더불어 심리상담

가가 치매 환자 집을 찾아가 진단 초기의 불안과 우울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심리상담사의 자격에 따라 인지행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진단 초기의 우울증, 심리 불안 등에 도움이 되고, 음악치료·미술치료의 경우는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재택 치매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도 적용

이러한 서비스는 실제로 어떻게 제공될까? 텍사스의 달러스, 포트워스 지역에서 수년째 치매 카운슬링과 테라피를 제공하는 미셸과 베니사 두 전문가를 만났다.

“치매 환자의 집을 방문할 때 주로 집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치매 환자가 살기에 안전한 환경인지, 위험요소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조언을 한다. 놀랍게도 혼자 사는 치매 환자도 꽤 많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찾아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위험이 될 만한 것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라고 조언한다.”

미셸은 재택 카운슬링이 치매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베니사 역시 재택 카운슬링 효과가 좋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소화가 잘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조언한다. 냉장고를 함께 살펴보거나 집 안을 걸어 다니며 환자의 여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집에서 카운슬링을 받을 경우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가족 간병인은 물론이고, 주 간병인이 아니더라도 가끔 방문하는 자녀들 혹은 다른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 포함돼 있어, 치매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64세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여성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렇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니 너무 편합니다. 남편도 이제 나이가 있어 고속도로 운전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시설로 가야 했을 때는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 걸 알면서도 아예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1년을 기다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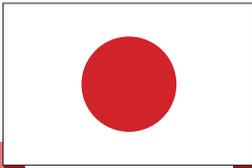
“평균보다 이른 나이에 진단을 받아 첫해는 혼돈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보험 없이 감당해야 하니 가격이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65세가 넘은 후 메디케어를 이용해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편이 상담 시간을 많이 기대하곤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들 사이에 역할 분담이나 역할 재배치가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집에서 시간을 맞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치매 카운슬링은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독특한 치매 관리 서비스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이 한국에 널리 알려지고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



텍사스 달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서 치매 카운슬링 및 테라피를 제공하는 공인 심리상담사인 미셸(왼쪽) 박사와 국가 공인 치매 전문가 협회(NCCDP)의 전문 임상 사회복지사 베니사,
(Forgetmenoldementiaservices)



일본편

고령자 재취업 새로운 실험, '모자이크형 취업' 뜬다

한 사람 일 여러 시니어가 나눠 수행...전용 매칭앱 'GBER' 활용 지자체 확산

Editor 김웅철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저자·전 매일경제 도쿄특파원

■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하고 있는 요즘, 건강한 장년층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은퇴 이후 사회 참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을 비롯한 사회 참여는 노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하는 당사자에게도 고민거리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당면 과제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같은 고민을 해왔고 액티브 시니어의 일자리,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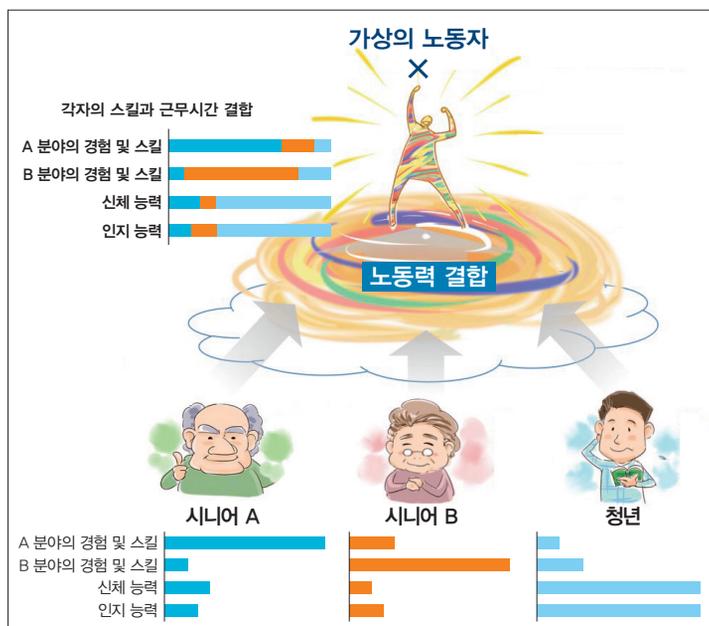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모자이크형 취업(モザイク型 就労)'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니어 사회 참여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현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자이크형 일자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전일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을 쪼개 여러 명이 나눠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의 내용이나 시간, 지역을 세세하게 나누고, 참여자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 하고 싶은 일 또는 잘할 수 있는 일을 모자이크형 취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에 신청한다. 신청자 한 사람의 일은 모자이크 조각에 해당하지만, 그것들을 합치면 한 사람의 몫이 된다는 의미에서 '모자이크형 취업'이라고 부른다.

고령자 맞춤형 '모자이크형 취업' 앱 하나로 신청 가능

모자이크형 취업은 고령자에게 무리 없는 취업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해 낸 아이디어다. 퇴직한 시니어는 하루 3~4시간 등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싶어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찾고 싶어 한다. 생계보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거나,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모자이크형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한 사람분의 일을





모자이크형 취업은 고령자에게 무리 없는 취업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고안해 낸 아이디어다. 퇴직한 시니어는 하루 3~4시간 등 일하는 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싶어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을 찾고 싶어 한다. 생계보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거나, 건강을 유지하고, 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세하게 모자이크 조각으로 나누는 작업과 이 조각들을 여러 사람에게 할당해 한 사람의 완성된 일로 꿰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복잡한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GBER'라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모바일 앱)이다. GBER란 'Gathering Brisk Elderly in the Region(지역의 건강한 고령자를 모은다)'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말 그대로 지역 내 시니어 일자리 매칭 서비스다.

GBER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시니어의 유연한 근로 방식을 고민하던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히야마 아쓰시 특임교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히야마 교수

는 2011년부터 퇴직 후 시니어들의 보람찬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ICT를 활용하는 연구를 시작했고, 5년 정도 연구개발 끝에 일하는 시간, 장소, 스킬의 관점에서 직업을 매칭해 시니어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구직을 지원하는 GBER 시스템을 고안했다.

GBER 플랫폼은 분해된 1인분의 일을 취업 조건인 시간·장소·스킬 3가지 관점에서 복수의 시니어 노동력과 매칭한다. '달력(스케줄) 항목에서 참여자는 예정된 비어 있는 시간에 맞춰 지역 활동을 찾을 수 있다. '맵(위치)을 통해 참여자의 생활권 내에서 지역 활동을 찾을 수 있고, Q&A(관심 분야·전문성) 항목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자신의 흥미와 기술에 따른 지역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GBER를 활용한 최초의 모자이크형 취업 실증 실험은 2016년 4월 지바현 가시와시(市)에서 진행됐다. 가시와시의 도쿄대 캠퍼스에는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가 있어 시니어 커뮤니티나 기업 등과 함께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지역을 디자인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가시와시의 첫 GBER 프로젝트는 나뭇가지 치기 등 정원 가꾸기 작업. 30명 정도의 시니어 그룹 '가든 서포터'가

2018년 7월 하순 지바현 가시와시의 민간에서 시니어들이 나뭇가지 치기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 대부분 원예 경험이 없는 화이트칼라 출신의 퇴직자다.(도쿄대학 홈페이지)

GBER 개발자 히마야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BER를 통해 건강한 퇴직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을 떠받쳐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시니어 세대를 지탱하는 인구 피라미드가 아니라 다수의 시니어가 소수의 젊은 세대를 떠받쳐 주는 안정된 인구 피라미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참여했다. 그룹 회원들은 2개월 후까지의 자신이 일하고 싶은 희망을 GBER 앱의 달력에 등록한다. 지역 주민의 작업 의뢰를 받으면 그룹 리더는 GBER에서 멤버의 스케줄을 일람하고 작업 일정을 짚는다.

일정이 정해지면 GBER 시스템은 취업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장의 지리적 관계, 출동 횟수나 스킬을 고려해 실제 출동할 멤버를 결정한다. 1회 출동에는 보통 10명 정도의 멤버가 모인다. 갑작스러운 예정 변경 등으로 출동이 어려워진 멤버가 있어도 대체 멤버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교체도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 보통 혼자서 하는 가지치기 작업은 반나절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모자이크형 취업은 팀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1회 근무 시간은 3시간 정도면 된다고 한다.

다른 지자체로 뻗어나간 GBER 프로젝트, 한계도 있어

GBER를 활용한 가시와시의 정원 가꾸기 모자이크형 취업은 2022년 3월까지 약 6년간 6000여 명의 고령자가 참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가시와시의 ‘GBER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GBER를 활용한 시니어의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2019년 9월 구마모토현 나가스초 실버인재센터에서는 향토 산업인 감상어(鑑賞魚) 경매 보조 일자리를 GBER로 모집했고, 농작물 수확 지원, 고령자 생활 지원 사업 등에서 GBER가 사용되고 있다. 2021년 3월 도쿄도 세



GBER를 고안한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히마야 아쓰시(檜山敦)
특임교수(도쿄대학 홈페이지)

타가야구, 2022년 초 후쿠이현과 도쿄도 하치오지시에서 지역의 고령자나 고령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GBER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가시와시에서 태어난 ‘GBER’는 원래 시니어들의 재취업 매칭을 상정한 지원 앱이었지만, 이제는 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평생학습, 취미 동아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GBER를 활용한 모자이크형 취업이 정착하는 데는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일거리를 찾는 고령자의 요구나 수에 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수와 종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단말기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자들에게 모바일 앱 GBER 활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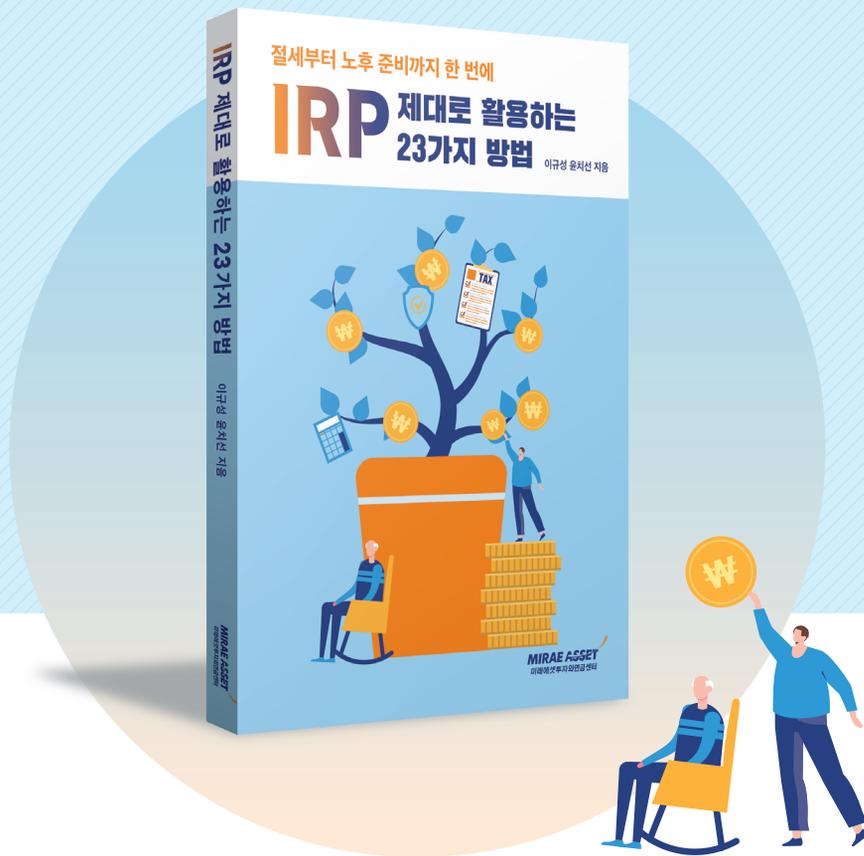
또 고령자가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실제 업무보다 업종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참여를 주저한다는 점도 문제다. 시니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 내 활동이나 사업자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GBER 개발자 히마야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BER를 통해 건강한 퇴직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을 떠받쳐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소수의 젊은 세대가 다수의 시니어 세대를 지탱하는 인구 피라미드가 아니라 다수의 시니어가 소수의 젊은 세대를 떠받쳐 주는 안정된 인구 피라미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M**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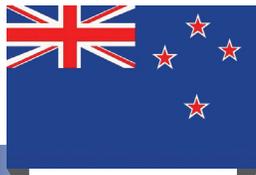
[개인형 퇴직연금]

이규성 윤치선 지음



절세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 노후준비를 위한 머스트 헤브 아이템(Must Have Item), IRP
- 가입부터 운용, 연금 수령까지 IRP 활용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다!
- 이직이 잦은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를 앞둔 퇴직예정자까지 모두의 필독서!



호주편

은퇴 연령 점점 높아져, 지금 20세는 70세까지 일할 수도

코로나19 사태 후 2년, 호주 은퇴 트렌드 변화

Editor 최동희 호주 회계사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호주의 은퇴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었다. 호주의 경제학자 론슬리 박사(Rawnsley Terry)는 ABC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기간 더 많은 고령자가 은퇴를 미루거나 일터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그 시기에 은퇴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이 국경 폐쇄로 인해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여행도 못 가고 일자리가 많으니 계속 일하자고 생각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호주 노동인구는 18만5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55세 이상이 70%인 12만7000명을 차지했다. 국제 이주가 재개되고 55세 이하 노동인구가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노동인구 증가 수에서 55세 이상 비중이 21.3%로 감소했다. 이를 보면 코로나19가 호주인들의 은퇴 시기를 늦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 안 해본 일을 안 해본 방식으로

또 다른 트렌드는 경력 변화다. "30년 동안 한 산업에서 일했다면 노동시장에 참여는 하고 싶지만 이전엔 안 해본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열정적인 프로젝트, 예컨대 예술·여가활동이나 전혀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에 종사할 수도 있다. 론슬리 박사의 얘기다.

은퇴 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열정적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많은 은퇴자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소셜 미디어 관리



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은 이러한 고령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재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론슬리 박사는 "은퇴의 형태는 한 가지 정답이 없으며, 개개인의 다양한 결정의 결과값"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드라지는 새로운 트렌드는 호주인들의 '반은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전형적인 '반은퇴' 형태는 은퇴한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다. 일부 은퇴자들은 정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원 가꾸기나 골프와 같은 취미를 즐기기 위해 1년 정도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그 생활에 지쳐 다시 파트타임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트렌드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시간제 근무나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은퇴자들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은퇴 후에도 주 2~3일만 출근해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후배들을 멘토링하

는 형태로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호주의 재정자문 전문 사이트 파이낸셜어드바이저(Financial Advisor.com.au)의 대표 제임스 제라드(James Gerrard)는 호주인이 슈퍼(퇴직연금)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의 변화도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말한다.

제라드는 “이전에는 55세에 은퇴하고 개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연령이 65세 이상”이라고 말했다. 20년 동안 매년 평균 0.1년씩 은퇴 연령이 높아졌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풀타임으로 일을 시작하는 20세는 70세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점점 화이트칼라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은퇴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60세나 67세에 사무실 환경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것이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체력적으로 훨씬 더 쉽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이도 있다. 더 오래 일하면서 생긴 소득으로 연금의 필요성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다. 또 고령 노동자가 더 오래 세금에 기여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호주인들은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과 사회적 연결을 위해 계속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심리적으로도 많은 은퇴자들은 일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고, 일상에 목적을 부여받는다.

사회적 역할을 지속함으로써 고립감을 줄이고,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컨대 은퇴 후에도 비영리 단체에서 자문 역할을 맡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성취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호주의 투자은행 및 연금투자회사의 은퇴솔루션 담당 이사 벤 힐러.(AMP ltd) 호주 파이낸셜어드바이저 대표 제임스 제라드.(Financial Advisor Australia)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 노동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들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롤 모델이 돼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더 나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마음으로는 자녀 돕고 싶지만, 내 삶 희생하고 싶진 않아

은퇴 시기가 미루어지는 것 이외에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관해서도 변화가 있다. 호주의 투자은행 및 연금투자회사인 AMP의 은퇴솔루션 담당 이사 벤 힐러(Ben Hillier)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호주인 5명 중 4명은 그들의 자녀가 같은 나이에 자신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4명 중 3명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면서도, 조사에 응한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은퇴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고 답했다.

실제로 젊은 호주인들은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빈부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호주 시니어층은 자녀들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생활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세대 간 재산의 약 90%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전달되며, 호주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이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속된다. **M**

당신의 노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ETF 테마 3가지

첫째는 ETF 시장의 핵심 인물인 저자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담겨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ETF 투자의 목적을 투자자의
'노후'에 두었다는 점이다.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

저자 김남기
발행 2024.07.08
출판 북오션

Editor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외연금센터 수석연구원

■ 2002년, 국내 ETF 시장의 출발은 미미했다. 단 2개의 종목, 순자산 2880억원으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22년이 흘렀다. 2024년 7월말 현재는 879개 종목, 순자산 156조원에 이른다.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무려 540배 성장이다.

국내 ETF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은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났다가보다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젊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ETF 시장도 휘몰아치듯 맹렬한 기세로 성장했다. 폭풍 같은 시기의 한가운데서 국내 ETF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온 인물이 있다. 바로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의 저자 김남기 미래에셋자산 운용 ETF 운용부문 대표다.

유명 ETF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담겨

ETF를 다룬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차별화되기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ETF 시장의 핵심 인물인 저자가 ETF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떻게 조직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서사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진짜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ETF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진진하다. 대표적인 예피소드로 S&P500 현물 ETF의 탄생 비화를 들 수 있다. 이 ETF가 상장된 시기는 2020년 8월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시장 변동성이 심하던 때였다. 지금이야 S&P500, 나스닥100 같은 대표지수 ETF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당시만 해도 달랐다. 대세는 시장 일간 변동의 2배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레버리지 ETF나 반대 방향의 -2배를 추종하는 X2 인버스 ETF였다. 대부분의 운용사는 굳이 번거롭게 주식을 직접 담아야 하는 '실물형' 대신 운용이 간편한 '선물형' S&P500 ETF만 출시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S&P500 현물 ETF를 내놓는 것은 업계의 상식을 깨는 시도였다. 출시 이유는 자명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선물형 ETF는 담을 수 없기에 실물형 ETF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었다. 비록 지금은 투자자들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ETF에 쏠려 있지만, 언젠가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처음엔 주목받지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유튜브 채널 투자외연TV 영상 <미국 ETF 언제 들어가면 좋냐고요?> 중 한 장면(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영상 보러가기

못했다. 그러나 끝내 국내 최대의 S&P500 ETF로 성장했다. 대세에서 한걸음 벗어나 보다 멀리 내다본 '다른' 사고가 아니었다더라면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ETF 3가지 주목 키워드:
미국과 혁신, 인도의 잠재력, 연금 인출 솔루션

이 책이 가지는 차별점 두 번째는 ETF 투자의 목적을 '노후준비'에 두었다는 점이다. ETF는 연금계좌로 노후자금을 형성하려는 투자자들의 미래가 달린 투자 솔루션으로 다루어진다. 저비용, 투명성, 거래의 편의성, 분산된 포트폴리오라는 ETF 고유의 특성은 장기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저자의 믿음이다.

이 책에는 노후준비를 위해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ETF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미국과 혁신, 인도의 잠재력, 연금 인출 솔루션으로 압축된다.

먼저 저자가 미국 시장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미국 시장의 대표성. 미국은 세계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거래대금 역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둘째, 주주친화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미국의 기업문화. 지난 10년 동안 미국 기업의 주주환원율은 9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

셋째, 미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성. 수많은 특허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있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고 10대를 보낸, 심지어 가진 것도 없던 이민자였다. 이런 사람이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해 글

로벌 기업을 일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점을 생각해 보면, 투자자로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세계 10대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포진돼 있다.

다음으로, 연금을 굴리는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선진국과 더불어 신흥국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책 속의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올해 인도는 인구에서 중국을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증시도 7월말 기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이다. 생산과 소비가 활발한 젊은 인구가 풍부한 데다 꾸준한 GDP 성장률까지 더해져 전 세계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인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관련 펀드와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점은 연금 투자자도 고려해볼 만한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 적립기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연금인출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ETF가 소개돼 있는 것도 눈에 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도 은퇴 대열에 들어선 만큼 연금 인출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 소득이 줄거나 사라진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존재는 은퇴자에게 중차대한 문제다. 인출과 투자를 겸할 수 있는 월배당 ETF의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은 퇴직 예정자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3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는 없는 고위험 상품이다.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조급함이 읽히는 부분이다. <당신의 미래, ETF 투자가 답이다>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지는 않다. 대신 느리더라도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연금자산을 축적하는 법, 그리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풍부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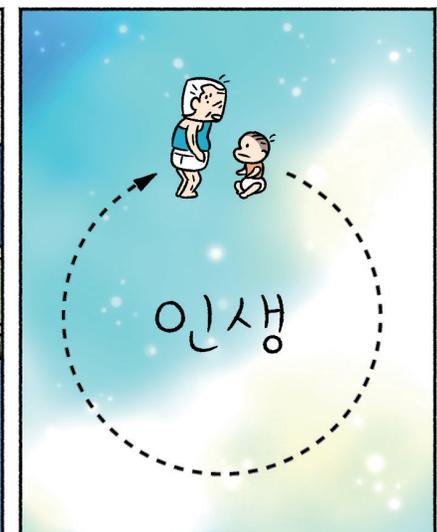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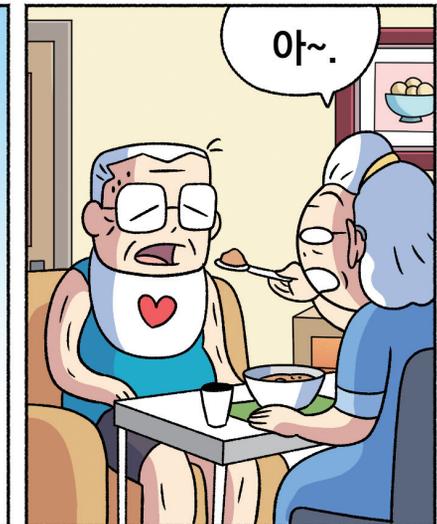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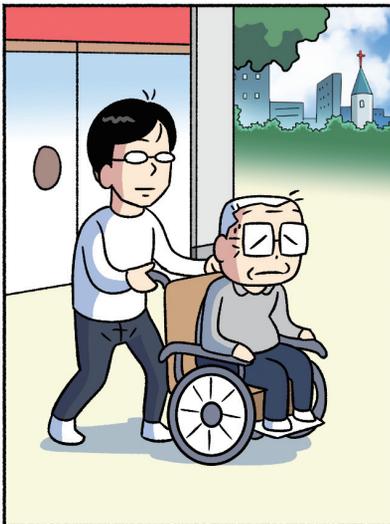
OLD

글·그림 - 홍승우

초고령 BEGINS



악몽을 꾸나...?



결국 제자리였구나.



꺼져!!



새로운 시작!



LG전자가 CES 2024에서 스마트홈 허브를 포함해 만능 가사생활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홈 AI(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공개했다.(LG전자)

반려 로봇과 노후 함께하는 시대 머지않았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Editor **한소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미국의 인기 시트콤 모던패밀리에서 스마트 냉장고가 나온 적이 있다. 이 냉장고에 장착된 인공지능 비서 브리짓은 요리할 때 새로운 레시피를 알려주고, 식재료를 주문하고, 스케줄도 정리해 알려준다. 그뿐 아니라 같이 가십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아차리면 칵테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이 냉장고는 커플과 가까워지면서 커플 사이에 끼어들어 온 제3자가 되어버렸다. 노래방 기능이 있는 냉장고와 같이 듀엣으로 노래하고 있는 파트너를 보고 질투가 나서 냉장고 전기코드를 뽑아버리기도 하고 자기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려고 냉장고 안에 꽃바구니를 넣어놓기도 한다. 몇 년 전에 나온 에피소드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현실적이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다. 알파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도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자율주행차와 안내로봇, 사람처럼 말하는 챗GPT는 이미 놀라움이 아닌 익숙함을 주고 있다.

형체는 없어도 말은 통해, 대화형 챗봇

로봇은 사람의 형태를 할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형태가 아예 없는 대화형 챗봇이 있다. 영화 '그녀(Her)'의 AI챗봇 사만다는 대화는 물론 그림을 그리고 작곡도 한다. 영화 속에서 사만다는 대화를 통해 감정과 사랑을 배우며 진화하고 주인공 테이도르는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화하는 AI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만들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 챗봇은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



(왼쪽부터) 웨어러블 로봇의 원조 격으로 1965년에 나온 제너럴일렉트릭의 Hardiman,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의 착용로봇 Vex, 엔젤로보틱스의 보행슈트 2.

면 챗봇이 받는다. 의료 분야도 원격진료와 검사 및 진단 등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AI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심리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집에 있을 때 적적해 아무 영상이나 틀어놓는 경우가 많다. 너무 울적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칠 때, 약간의 대화가 필요할 때 챗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만으로도 사회적인 효과가 있고 주변 문화행사와 모임에 대한 정보를 받고 커뮤니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약해진 신체 보조해 줄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로봇슈트를 생각하면 상상이 된다. 영화에서처럼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웨어러블 로봇보다는 장애인의 보행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치료와 보조관점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업무환경에서 신체 근골격계를 보호하기 위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2022년부터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평소에 입는 옷과 같은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이 개발되면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의학적 기대수명은 125세지만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은 75세다. 고령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넘어지는 것이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더디고 근력이 약해져 또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감각 기능 저하, 근력 저하, 근 감소 등을 웨어러블 로봇으

영화 속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화하는 AI는 친근감과 신뢰감을 만들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 챗봇은 이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다.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면 챗봇이 받는다. 의료 분야도 원격진료와 검사 및 진단 등 점점 많은 부분에서 AI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 보조할 수 있다. 스마트 의류 분야에서 무릎, 발목, 허리 등 신체 부위에 착용하는 모듈형 보조기에서 의류 형태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사 도와주는 로봇과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가전제품

청소기를 돌리고 요리를 하고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을 꺼내 정리하고 세탁기까지 돌린다. 주인의 영양제를 챙겨주고 잠 자리에 든 주인의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끄는 것도 잊지 않는다. 스탠퍼드대학과 구글 딥마인드의 공학자들이 개발한 로봇 '모바일 알로하(Mobile ALOHA)'는 요리, 세탁, 청소, 반려동물과 놀아주는 기능까지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시연 영상에서 만날 수 있지만 꿈에 그리던 가사도우미 로봇이 일상에 들어올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 온도를 최적화하는 에어컨, 냉장고 안의 식료품을 구별해 부족해진 식재료를 주문하고 레시피를 알려주는 냉장고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과 구글 딥마인드 협업으로 개발된 로봇 Mobile ALOHA. 인간의 조종으로 가사일을 학습한 다음 인간의 개입 없이 시연하고 있다.(ALOHA 홈페이지)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연결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시대에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도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초연결을 바탕으로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감지능을 추구하는 LG전자는 직장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하는 인공지능 가전을 개발하고 있다. LG전자의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이동 가능한 미래형 만능가사도우미 스마트홈 허브다. 집안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고 가전 및 IoT를 연결시켜 스마트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사용자가 집에 돌아오면 현관 앞으로 마중 나와 반겨주고, 사용자의 목소리나 표정으로 감정을 파악해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재생한다.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인기 유튜브 박막례 할머니가 2019년에 올린 콘텐츠,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식당'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일으켰다. 바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음식점이 노인을 소외시키는 것 아니냐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키오스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나이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수용의 차이는 그 세대가 겪어온 경험의 차이가 큰 요인이다. 전쟁과 가난을 겪은 80대 이상 세대는 경제적인 이유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60대는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자신을 위한 소비에도 적극적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져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더 오래 걸리더라도 배울 마음이 있고 노력을 들이면 가능하다.

AI는 현재와 미래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이 확실하다. AI 로봇을 비롯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이런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 관리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는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일상적인 기기를 활용해 질병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 중이다. 카카오펀에서 개발한 헬스케어 앱 '파스타'는 집에서 간편하게 혈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웬지 우울할 때는 AI 심리치료 플랫폼에서 챗봇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연결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시대에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도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SNS로 사람들의 근황을 공유하기도 하고,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팔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정보도 찾아 참여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 **M**



이 광고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세계의 AI 리딩기업들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ETF·펀드

- 내 손안에 AI 시대가 온다!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480310)
- AI 성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투자하는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466950)
 - AI로 나스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시미국나스닥펀드
 - 아시아 AI로봇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 아시아하드웨어테크펀드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전 투자대상, 상품 고유 위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IGER 글로벌온디바이스AI ETF(480310): 위험등급 2등급 / 총보수 연0.49% ■ TIGER 글로벌AI액티브 ETF(466950): 위험등급 2등급 / 총보수 연0.79% ■ 미래에셋 시미국나스닥 증권투자신탁(주식)(H),(UH): 위험등급 2등급 / 종류A: 총보수 연1.35%, 선취판매수수료 1.0% 이내 ■ 미래에셋 아시아하드웨어테크 증권투자신탁(주식): 위험등급 2등급 / 종류A: 총보수 연1.48%, 선취판매수수료 1.0% 이내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1435호 (2024-04-19 ~ 2025-04-15)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RETIREMENT PENSION



이 광고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금으로 안정된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 퇴직연금 증권업계 적립금 1위 (2023년 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 2년연속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2022, 2023년/고용노동부 선정 증권업 부문

● MP 구독 무료 서비스

*MP-Miraeasset Portfolio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 연 0.18%, 3억 이상 :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거래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1427호 (2024.04.16 ~ 2025.04.15)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의 새로운 변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하는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 장점

최대 3년간 퇴직연금
10% 추가적립

※ '24년 기준 26만 8천원,
단 사업주 지원기간 내에만 지원

2023년
연 7% 수익률

※ 출처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사업주 장점

최대 3년간
2,412만원 지원

※ 1인당 26만 8천원,
최대 30인

4년간
수수료 0원

※ 2024년 가입 시 4년간 수수료 면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비대면가입
영상보기





원리금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채 미래에셋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첫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판매!

- 만기보유시 가산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혜택까지 (2억원한도)
- 중도환매는 매입 후 1년후부터 신청가능 (총 한도 내에서 선착순, 특정월에 중도 환매 불가 할 수 있음)
-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표면금리를 단리로 적용)
- 장기투자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하며,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질권 등 담보 설정 불가
-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매입 금액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년 5월 30일



개인투자용 국채
바로가기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상담센터 1644-3322]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에 따릅니다. ■ 채권은 발행국가(발행사) 신용등급의 하락 시 원금손실발생이 가능하고, 발행국가(발행사)의 파산, 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로 각 +,0,-순으로 구분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2480호 (2024.06.21~2025.06.20)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